



조인경, **타윈의 고통**, 2016, 100×100cm, Archive pigment print

성남미술은행SNAB은 성남문화재단이 미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아트 세어링 프로그램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역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구입, 이를 다시 지역기업과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작가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보유한 회화, 조각, 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은 작품가 기준 0.5~1.0%(월 기준)의 대여료로 일정 기간 소장 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의 대여 수입은 성남시 관내 문화복지기관 무상 대여 등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소중히 쓰일 예정입니다.

성남미술은행 www.snab.or.kr

아트뷰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VOL.145



INTERVIEW
성남오리플래그보존회
이사장 강승호

ARTISTS



PREVIEW
2019 마스터즈 시리즈
〈해변의 남자〉 〈자야도취〉



COVER STORY
Artists in Seongnam
성남의 예술가들

ART+SPACE
폐산업시설을 통한
도시재생



INTERVIEW
김진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



ART+PLACE
아트 시티를 가다
뒤셀도르프

SEONGNAM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파크콘서트

PARK CONCERT



2019.
5.25 - 7.6

7:30pm (매주 토요일 · 현충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무료공연

문의 031.711.7762

주최 · 주관 성남문화재단 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 5.25 DJ 박명수 레이든 주니어셰프 머쉬
- 6.01 김건모
- 6.06 국수호 디딤무용단 <코리안 드럼 - 영고II> 현충일 특별 공연
- 6.08 크러쉬 비와이 김하운
- 6.15 10cm 잔나비
- 6.22 넬(NELL)
- 6.29 세븐틴 레이나 프로미스나인
- 7.06 혁오 카더가든

※ 상기 일정 및 출연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 시리즈 - 연극滿員

재미있는 연극. 삶이 있는 연극.



우의 노래방 가서... 애기 좀 할까?

누군가를 향해 진심으로 노래해 본 기억이 있다면
6. 14(금) - 16(일)
금 20시
토·일 14시, 17시
제작: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100% 유쾌한 유쾌한

굳어 버린 심장을 깨우는
댄스 씨어터

9. 20(금) - 21(토)
금 14시, 20시 토 14시
제작: (재)국립극단



3대가 울고 웃는
세대공감 명품 연극

10. 25(금) - 27(일)
금 16시, 20시
토 14시, 17시 일 14시
제작: 창작공간 스튜디오블루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어느 독심술사의 좌충우돌 분투기

독심술사의 좌충우돌 분투기

12. 13(금) - 15(일)
금 16시, 20시
토·일 14시, 17시
제작: 극단도마뱀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전석 10,000원

문의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함께 사는 삶
By 아줄리크 어 메이

AZULIK Uh May

고대마야문명의 중심지였던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그곳 어딘가의 정글 숲에 위치한 아줄리크 어 메이 AZULIK Uh May는 2018년 겨울에 완공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신비로운 산호초 군락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건물들은, 수만 년을 거처온 정글 속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갤러리 'K 랩 어 메이'다. 이곳을 설계한 로스Roth (본명 에두아르도 네이라Eduardo Neira)는 지붕, 바닥, 계단 등 공간 곳곳에 수많은 구멍을 뚫어 정글의 나무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건물 아래로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야인들과 함께 이곳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조차 베지 않았다는 것은, 아줄리크 어 메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줄리크 어 메이가 아름다운 것은 정글과의 공존을 위해 불편도, 수고로움도 마땅히 감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CONTENTS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Vol.145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Vol.145
June & July 2019

COVER STORY

08 Interview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 이사장 강승호
Chairman of the Board at the Seongnam Ori-ttul Nongak Conservation Association, Kang Seungho

12 Interview

작가 주선영
Artist Joo Sunyoung

VIEW

18 Preview

파크 콘서트
Park Concert

20 Preview

앙트레 콘서트: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Entrée Concert: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Madam Ong>

22 Preview

연극만원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Theatre Full House <Could We Go Karaoke and... Have Some Talk?>

24 Preview

2019 마스터즈 시리즈 <해변의 남자> <자아도취>
2019 Masters Series

26 Zoom In

2019 동시대이슈展 <바디스캔들>
The Exhibition of Contemporary Issues: Body Scandals

ART CURATOR

32 Cinema Classic

영화 <버드맨>과 라흐마니노프
Film <Birdman> & Rachmaninoff

34 Book

이달의 책
Book of the Month

36 Art+Trend

일반인 작가와 독립 출판
Amateur Writers and Independent Publishing

38 Art+Trend

유튜브를 통한 일상 공유 '브이로그'
'Vlog', Sharing Daily Life via Youtube

40 Art+Place

아트 시티를 가다: 뒤셀도르프
Visit to the City of Art: Düsseldorf

48 Art+Space

폐산업시설을 통한 도시재생
The Urban Regeneration through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57 Book in Book

벤치에서...
At the bench...

INSIDE SEONGNAM

66 Interview

김진환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
The President of Seongnam Arts Center Patrons Association, Kim Zinhwan

70 Sketch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중국 현지 답사기
Creating Web-comics about Independence Activists Project: Field Investigations in China

72 Zoom In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
Taepyeong Vacant Hous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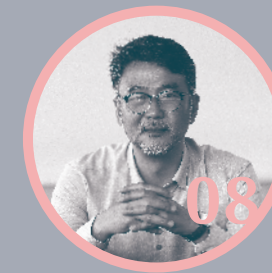
76 Calendar

78 SNART News



ARTISTS

IN IN



성남의 예술가들

언제나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남을 담아내고 지켜가는 예술가들이 있다.
그들이 지키고 빛어낸 예술이 있기에,
오늘의 성남은 어제보다 풍요롭고 아름답다.

●
COVER STORY

08
Interview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 이사장 강승호

12
Interview
작가 주선영

SEONGNAM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 이사장 강승호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전통



©최재우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무관심 속에 점차 사라져가는 지금,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전통의 외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가 있다. 지역의 향토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난한 고난의 행로를 밟아온,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 강승호 이사장이다. 문헌 저 너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성남오리뜰농악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지켜가며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그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았다.

뻑뻑한 콘크리트 빌딩이 주변을 에워싼 야탑역 광장 사이로 북소리와 팽과리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어 ‘성남오리뜰농악’이라고 적힌 깃발을 든 기수들, 흰색 바지저고리에 청색 조끼를 입고 삼색 띠를 맨 잭이들이 광장으로 모여든다. 선비와 스님, 포수 차림의 잡색들은 시민들 사이를 누비고, 곧이어 농악으로 농사 과정을 풀어내며 풍요를 기원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진다.

농악인으로서의 첫 걸음

사라질 뻔했던 성남의 향토문화 오리뜰농악. 도심 한복판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전통예술과 문화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던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 강승호 이사장이 있다. 강승호 이사장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옛것에 대한 막연한 호감’으로 가득했던, 어찌 보면 애늬은이 같기도 했던 ‘소년’으로 회상한다. 옛 물건을 보면 자기 방에 갖다놓고 애지중지하던 모습에, 어른들은 “승호는 속에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나 보다”며 신기해하곤 했다. 그러던 중, 그를 농악으로 이끈 뜻밖의 계기가 찾아왔다. 대학교 입학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았던 춘천, 민박집 방 한구석에 놓인 경기민요 카세트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국악이 그를 사로잡았다. 농악인 강승호로서의 첫 순간이었다.

농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악기 연주, 춤, 노래까지 모두 배워야 했다. 여러 스승들을 찾아 판소리를 비롯해 국악의 다양한 분야를 익히기 시작했고, ‘전통’에 대한 그의 배움과 열정도 날로 깊어졌다. 문화운동단체인 도움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국을 누비며 각 지방의 향토 농악을 접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성남의 전통 농악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그러던 중 지금의 분당신도시 지역에 고유한 향토 농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자리했던 ‘오리뜰’ 평야, 1940~70년대 말에는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1989년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오리뜰 평야도, 농악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사라진 오리뜰농악의 복원을 위해 강승호 이사장은 끈질긴 연구를 거듭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옛 오리뜰 원주민 농악대원들을 일

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고증을 통해 복원에 전념했고,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에 선정된다. 안타깝게 소멸될 뻔했던 ‘성남오리뜰농악’은 성남문화원과 강승호 이사장,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어 재현 공연으로 성공적인 복원을 알리게 된다.

하지만 다시 생명을 찾은 전통과는 달리 그의 삶은 점점 힘겨워졌다. 세차 일부터 광고 전단 아르바이트까지, 농악을 하는 동안 해보지 않은 일은 없었다. 지하실 한구석에 겨우 연습실을 마련하면 어김없이 소음 민원이 들어와 이사를 다니기 일쑤. 한 집안의 가장이 된 후에는 농악이 더 무거운 짐으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함께 활동하던 선배들도 이미 생계를 위해 떠난 지 오래, 결국 그도 농악을 하면서 늘어난 빚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피지 이민을 결심한다. 가족을 먼저 보낸 뒤 한국에 홀로 남아 그동안 응원해주었던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그간의 정리를 시작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지난 과정을 뜨겁게 상기시키며 그를 붙잡았다.

‘딱 10년만 더, 결과가 어떻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홀로 한국에 남은 강승호 이사장의 노력은 한층 치열해졌다. 잇따른 여러 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은 물론이고 중국 심양 세계한상대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Volgograd 시 창건 페스티벌, 캐나다 빅토리아 축제 등 국내외를 누비며 성남오리뜰농악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세월이 이어졌다. 그 노력에 대한 대답이었을까, 결국 성남오리뜰농악은 2017년 1월, 제16호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그가 이민을 뒤로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은 지 10년이 되던 해였다.

세계에 전통을 전하다

중국 심양에서는 2017년부터 <성남오리뜰농악 현덕 강승호기 농악경연대회>가 펼쳐지고 있다. 중국의 우리 후예들, 동포들이 모여 기량을 뽐내는 행사다. 우승팀은 다음 해 한국에서 열리는 성남오리뜰농악팀의 정기 공연에 초청되어 함께 공연한다. 지난 4월 27일, 성남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6회 성남오리뜰농악 정기 공연> 역시 조선족 농악무가 함께하며 화합의 한마당을 선보였다.

“조선족의 문화에서도 우리 문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잃어

버린 문화 복원을 위해 학술적 및 역사적으로 조명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성남오리뜰농악 복원 이전부터 ‘한민족 문화공동체 프로젝트’라는 목표 아래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전통을 알려온 강승호 이사장의 노력은 단순히 풍물 공연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조선족 학교와 러시아의 고려인에게 전통 악기와 의상을 기증하고 직접 풍물패를 만들어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은 물론, 입양아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젝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를 위한 공연 등 세계 곳곳에 아픈 사연을 품고 흩어진 후예들에게 민족의 뿌리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가슴 먹먹한 기억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고려인들에게 사물놀이 팀을 만들어주기 위해 볼고그라드시를 찾았던 순간도 그중 하나다. 고려인 3세대들은 한국에서 찾아온 강 이사장 일행을 위해 러시아의 전통 꼬치구이 사슬릭을 대접했고, 그들은 불가장 주변에 모여 앉아 보드카를 곁들여 긴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의 아버지가 들려주던 한국어 단어 몇 개만 겨우 기억할 뿐 사실상 러시아인인 고려인 3세였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느냐는 강 이사장의 물음에 어눌한 발음으로 뜻밖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도라지도-라지 백도-라지...”

머나먼 이국에서 울려 퍼지는 도라지 타령의 선율 속에 얼마나 많은 한이 깃들여 있었던 것일까. 강승호 이사장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인 3세가 그를 끌어안고 뜨겁게 흐느꼈다. 강 이사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다지게 된 순간이었다.

01 4월 27일, 성남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6회 성남오리뜰농악 정기공연. 조선족 농악무가 함께하며 화합의 한마당을 선보였다



지역의 예술, 그리고 예술인을 위해

강승호 이사장의 노력은 이제 오리뜰농악뿐 아니라 성남의 전통 문화와 예술, 나아가 지역예술인들의 통합적인 발전으로 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에는 문화예술 공유플랫폼 ‘이음’ 협동조합을 출범, 자립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공생을 모색 중이다.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성남의 문화예술이 더욱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이음’은, 예술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다. 더불어 전통예술이 동시대 예술로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은 물론, 지역예술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 아이디어 또한 검토하고 있다. 성남 관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메세나 협회의 발족 역시 그 바람 중 하나다.

“그동안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은 대부분 클래식 음악이나 미술 등의 분야에 치중된 경향이 많았어요. 저희는 이 부분을 전통예술 분야로도 확장시키고, 기업과 예술인이 긴밀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지원조차 절실하거든요. 지금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더 젊은 후배들과 그 후대의 예술가들을 위한 노력이지요.”

그동안 별다른 예산 지원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성남 오리뜰농악 활동에도 다소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올해부터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로서 전승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활동 인원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습 뒤에 밥값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농악 역시 원형 그대로의 전통을 간직하되 오늘의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옛 선조들의 농악은 집 앞 마당에서, 마을 벌판에서 왁자지껄한 판을 벌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니까요. 연극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포함해, 대중이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풍물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야죠.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가는 것 역시 세계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해요. 지역의 선후배 예술가들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동시대이슈전
바디스캔들

2019.3.22(금)-8.25(일)
개막 2019.3.21(목) 오후 5시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작가 주선영

밤의 한가운데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질푸른 밤하늘이 펼쳐진다. 자작나무 숲의 새하얀 자태를 고고히 감싸고 잠초들의 쓸쓸한 너울거림까지 부여안는 푸른 밤. 누군가 한 번은 바라보았을 고요하고 깊은 밤이다.

분당구 어느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주선영 작가의 작업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온통 푸른 캔버스가 가득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작가를 사로잡은, 푸른색을 모티프로 한 밤의 풍경들이다. 한쪽에서는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 밤하늘을 담아낸 연작이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하나의 특정한 색깔로 규정 지을 수 없는 하늘, 수없이 많은 덧칠 끝에 비로소 질푸른 밤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와 시간이다.



01
별비, 116×91cm, Oil on Canvas, 2017

“제 작업 스타일이 유난히 덧칠을 많이 반복하는 편이에요. 원하는 느낌의 푸른색을 빚어내기까지, 수없이 많은 색을 섞어보고 칠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죠. 조색 결과에 따라 작업의 완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만의 색감을 찾아가는 과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작업 중인 자작나무 숲 연작은 2년 전 작품을 이어서 작업하려니 그때의 느낌, 동일한 색감을 재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면 답답한 마음에 조바심이 커지지만, 선불리 서두르다가는 결국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돼요. 어쩌면 유화 작업이란 기다림의 미학인 셈이죠.”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한 주선영 작가는 오랫동안 성남에서 성장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다. 누구나 삶속에서 마주치는 기억과 생각의 단상들을, 작가는 일상 속 자연의 모습을 빌어 표현한다. 그것은 때로는 밤하늘의 쓸쓸함으로, 때로는 나무의 외로움으로, 혹은 작은 풀들의 처연함으로 다가온다. 바닷가 모래사장, 바람에 휘날리는 작은 풀들을 담아낸 작품에서는 그저 끈질기게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평범한 ‘나’의 존재를 다시금 되뇌어보게 된다. 그 안에는 ‘무명의 예술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좌절과 절망을 겪어본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부자들, 가난한 이들이든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버텨내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잡초를 즐겨 그렸던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주관으로 치열하게 살다 보면 결국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사실 저도 지금보다 어렸던 시절에는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몇 달을 앓은 적도 있었어요. 누구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자꾸만 자학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저 꾸준히 차분하게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모두에게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그저 매일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리다 보니 <성남청년작가전> 개인전과 같은 좋은 기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재능을 만나다

그동안 성남큐브미술관은 현실의 여러 장벽으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작가들의 재능을 알리고, 관객 역시 이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미술계에 관심을 갖는 선순환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주선영 작가 역시 2014년 성남문화재단 신진작가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성남큐브미술관 그룹전에 참여하는 등 조금씩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온 경우다. 특히 성남큐브미술관이 2015년부터 진행 중인 <성남청년작가전>은 45세 미만의 역량 있는 지역 청년작가를 발굴, 청년작가들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인 반달갤러리 개인전과 주제가확전을 통해 그들의 창작 세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반달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성남청년작가전 2 <주선영: 푸른밤>에서는 작가의 대표작인 푸른밤 연작 시리즈, 숲을 소재로 한 작품과 다양한 드로잉, 소품들을 만날 수 있다.

“성남지역에 훌륭한 작가들이 참 많이 계신데, 저에게 이렇게 좋

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시는 <성남청년작가전>이나 미술은행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지역작가들에게는 많은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 중간 세대의 작가들이 정말 많아요. 완전한 신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견 작가라고 칭할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데 어딘가 지원하기에는 나이 제한이 걸리는 애매한 입장이지요. 꼭 연령에 따른 '청년' 작가로 규정짓기보다는, 이런 중간 세대 작가들의 전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작가들에게 한층 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작가는 <푸른밤> 작업 틈틈이 기왓장을 캔버스로 삼은 소품들도 조금씩 그리고 있다. 절에 다녀온 작가의 어머니가 "검은 기왓장이 그 자체로 '밤'의 캔버스가 되어줄 것 같다"며 건넨 아이디어다. 작은 기왓장에 밤하늘에 휘날리는 꽃송이, 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업들은 그 자체로 작은 기분 전환이 되어준다.

"매일 규칙적으로 몇 시간씩 꼭 작업하려 노력해요. 어느 날은 신들린 것처럼 막 열 시간씩 식은땀이 날 때까지 그리기도 하는데, 의욕 없이 잘 풀리지 않는 날도 많죠. 그럴 땐 일단 걸으면서 기분 전환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짬짬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새롭게 영감을 얻고 소재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여행에서 만나는 숲 속, 바다, 하늘까지, 작가에게는 모든 자연이 영감의 원천이다.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시간이 흐른 뒤 살펴보다 보면, 당시에 미처 깨닫지 못한 뜻밖의 감성을 안겨주는 풍경이 있다. 특히 매해 한 번씩은 꼭 찾는 제주도는 푸른 바다와 하늘, 숲과 나무 한 그루까지 최고의 영감을 주는 곳이다. 그전까지 들풀과 잡초에 흠뻑 빠졌던 주선영 작가가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도 제주도의 힘이다.

"사려니숲의 푸른 하늘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낮의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특히 고요한 밤하늘, 그 하늘이 머금고 있는 질푸른 어둠을 마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신비로운 고요함이 내면의 영감을 자극하는 기분이었



죠. 푸른색은 바로 저에게 당시의 감정을 일깨우는 색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깊고 푸른 밤, 그 끝없는 고독감과 고요함에 매료된 거죠."

주선영 작가는 앞으로도 '푸른밤'을 소재로 한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담대한 스케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아내기보다는 소소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씩 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창의성에 대한 고민은 치열하게 지속될 것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살아 있음을 느껴요. 여전히 무명의 예술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는 작가로 제 길을 묵묵히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누군가 제 그림으로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작가로서 참 행복하겠지요."

• 2019 성남청년작가전 2 <주선영: 푸른밤>이 6월 14일~8월 4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된다

푸른밤

2019.6.14(금)-8.4(일)
개막 2019.6.13(목) 오후5시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2019
MASTERS
SERIES2

MEN ON THE BEACH

해변의 남자



2019.
6. 5. Wed.
8pm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총예술감독 최청자 | 안무/연출 김형남 | 출연 빛마루무용단 | 주최·주관 성남문화재단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예매 1544-8117 ticket.interpark.com www.snart.or.kr 문의 031-783-8000



- 18 Preview
파크 콘서트
- 20 Preview
앙트레 콘서트·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22 Preview
연극만원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 24 Preview
2019 마스터즈 시리즈 <해변의 남자> <자아도취>
- 26 Zoom In
2019 동시대이슈展 <바디스캔들>



V I E W



파크 콘서트

모두가 기다리는 '여름 선물'

푸른 숲, 맑은 공기, 초여름의 밤바람, 그리고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야외 콘서트. 바로 성남시를 대표하는 여름의 아이콘, 파크 콘서트다. 마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2012년부터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파크 콘서트가 5월 25일~7월 6일 매주 토요일과 현충일 저녁에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찾아온다.



“지금까지 이런 야외공연은 없었다!” 파크 콘서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구가 아닐까? 나름대로의 역사와 충성도 높은 고정 팬층을 확보한 대규모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 적지 않지만, 파크 콘서트의 특별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공연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우선 첫 번째, 아름다운 야외공연장의 하드웨어다. 도심 속 자연 공간, 분당 중앙공원의 너른 잔디밭 한가운데에 자리한 야외공연장은 무대를 둘러싼 계단식 객석 뒤편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닌 잔디 언덕이 천연 그대로의 야외 객석 역할을 해낸다. 지휘자 장한

나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미국이나 유럽의 클래식 페스티벌에도 뒤지지 않을 멋진 공연장이 바로 이곳”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다. 특히 매년 파크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면 잔디밭을 가득 메운 1만여 명 관객들의 모습이 그 자체로 장관이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가장 인기 절정의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명품 라인업이다. 클래식, K팝, 트로트, 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 중인 최고의 뮤지션들이 관객을 찾아온다. 올해 역시 예사롭지 않은 구성이다. EDM 신scene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DJ 박명수, 레이든, 주니어세프, 머쉬5월 25일, 세대를 초월해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가수 김건모6월 1일, 우리의 전통 예술로 유럽 등 해외 무대에서도 극찬받은 국수호 디딤무용단의 <코리아 드림-영고 II>6월 6일, 크러쉬와 비와이, <고등래퍼 2> 우승자 김하은6월 8일까지 다채로운 색깔의 무대가 이어진다. 10cm와 요즘 가장 핫한 '성남 출신' 92년생 잔나비밴드 잔나비6월 15일, 모던 록 밴드 벨6월 22일의 무대도 놓칠 수 없다. 인기 절정의 보이 그룹 세븐틴, 레이나, 프로미스나인6월 29일이 밝고

상큼한 에너지를 한가득 전한 뒤에는 '절친' 혁오와 카더가든7월 6일이 특유의 감성으로 올해 파크 콘서트의 마무리를 장식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함은? 이 모든 공연이 놀랍게도 '무료'라는 사실이다. 파크 콘서트가 첫 선을 보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민들을 위한 이 믿기 힘든 혜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관객이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껏 즐기려는 마음,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이면 충분하다.

앙트레 콘서트: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웅녀>

웅녀, 성남에 문안이오

오늘날 창극을 대표하는 레퍼토리를 묻는다면 ‘심청가’나 ‘춘향가’ 못지 않게 <변강쇠 점 찍고 웅녀> 역시 반드시 관람해야 할 작품으로 추천하고 싶다. 창극 최초의 장기 공연, 꾸준한 객석 점유율 상승, 프랑스 파리 공연까지. 아직 창극을 경험해보지 못한 관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매력적인 텍스트와 밀도 높은 음악, 그리고 섹슈얼리티. 창극의 역사를 새롭게 쓴 작품이라 일컬어지는 <변강쇠 점 찍고 웅녀>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인기는 당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은 물론 프랑스 관객까지 섭렵하고, 매 공연 90퍼센트에 달하는 객석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관객을 끌어당긴 매력 요소는 무엇이였을까.

<변강쇠 점 찍고 웅녀>는 흔히 알고 있는 ‘심청가’ ‘춘향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이다. 외설이라는 이유로 소위 ‘고전’으로 인정받지 못한 ‘변강쇠타령’을 오늘날에 맞게 재탄생 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재담꾼이라 할 수 있는 연출가 고선웅의 첫 창극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더는 불리지 않는 ‘변강쇠타령’을 희곡으로 다시 쓰면서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틀었다. 과거에는 저평가된 이야기일지라도, 주인공 웅녀의 삶이 오늘날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는 변강쇠란 영화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색깔 남녀의 측면이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선웅이 새롭게 쓴 창극 대본은 ‘변강쇠’가 아닌 ‘웅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신에게 씌워진 기구한 운명의 굴레를 극복해낸 강인한 생명력,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차게 삶을 열어나가는 여인의 모습에서 동시대적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변강쇠와 웅녀 외에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부각했다. 각양각색의 장승, 호색 할매와 순정 할매, 마을 아낙네 등 뚜렷한 개성을 지닌 캐릭터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것 역시 극의 재미를 더한다. 이렇듯 다시 태어난 대본은 2014년, 차범석 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웅녀, 그 유쾌한 생명력

동시대의 관객과 만나게 된 ‘변강쇠타령’은 다채로운 우리 음악을 입고 그 매력이 배가됐다. 국악 그룹 ‘푸리’의 멤버이자 ‘바라지’의 예술감독으로 오래 활동했고 최근에는 음악가 정재일과 호흡을 맞추며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소리꾼 한승석(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이 작창과 작곡을 맡았다. 고선웅과 한승석, 동갑내기 두 예술가는 초연 당시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하기

도 했는데, 텍스트를 푹 씹어 넘기듯 섬세하게 배치하고 구성한 음악이 재미와 농밀함을 더한다. 판소리는 물론이고 민요와 정가, 비나리, 트로트,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적재적소에 넣음으로써 우리 음악의 흥을 한껏 살렸다는 평이다. “인생은 나그네길~”로 시작하는 최희준의 트로트 ‘하숙생’이나 카를 오르프의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면 웬지 모를 친근감을 자아내는 것이 작품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창극 작품 최초로 관람 제한 연령을 설정하는가 하면, 초연 당시 전례 없는 26일간 장기 공연을 진행하며 세간의 화제가 된 <변강쇠 점 찍고 웅녀>는 2014년 이래 매년 재공연을 거듭하며 짜임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서 공연하고 2016년 4월 프랑스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무대를 거치며 국내외의 다양한 관객을 만난 경험도 한몫했을 것이다. 객석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고 매진을 거듭하는 등 관객의 반응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는 후문. 또한 초연 이래 꾸준히 음악적인 부분을 보장하고 의상 역시 일부 새롭게 제작해 작품의 면면을 새롭게 했다.

장단에 몸을 맡기고 배우들의 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흥겹게 즐기다가도 여기저기서 톡톡 던져지는 한마디, 한문장이 주는 울림이야말로 <변강쇠 점 찍고 웅녀>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뜨겁기론 이만큼 화끈할 수 없고 당차기론 이토록 호방할 수 없는 웅녀, 상부살에 역마살을 품고도 거친 세상을 홀로 헤치고 나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고리타분한 전통 예술이라 생각하던 창극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지닌 장르인지 이 작품을 통해 꼭 만나볼 것을 권한다. 친구, 연인, 모녀, 부부 누구나 함께 보면 더욱더 좋지만, ‘18금’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앙트레 콘서트: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웅녀>
일시 7월 19일 20시, 7월 20일 1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VIEW

연극만원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닫힌 방 안에서 펼쳐지는 열린 이야기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연극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연극} 시리즈. 2019년 만원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는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로,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특유의 재기발랄함과 기발한 상상력이 보는 내내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민준호 작·연출의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는 형식과 내용이 서로 상반된 구조를 지닌 독특한 연극이다. 일단 이 작품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노래방'을 배경으로 한다. 무대 한가운데에는 실제 노래방 기계와 모니터, 테이블과 의자까지 갖추고 있어 관객이 진짜 노래방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느끼게 만든다. 사방이 막힌 좁고 어두운 방, 노래를 하기에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굳이 이곳까지 찾아와 노래를 부른다. 어쩌면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노래를 핑계로 숨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닫힌 공간'일지도 모른다.

작품 속 인물들 역시 노래에는 그다지 관심없는 사람들이지만, 굳이 이 작은 노래방을 찾아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적당한 소음이 대화를 가려주는 이곳이야말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은 방 안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아들, 젊은 연인, 중년의 커플, 또래 아줌마들이 차례차례 드러내며 속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별할 것 없는 잔잔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배경 음악처럼 흐르는 노래방 반주와 유행

가 가사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친숙하고도 진솔한 울림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한편, 이 작품은 노래방이라는 '닫힌 공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무대와 이야기의 운용 방식은 놀라울 만큼 '열린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방 주인이 작품을 이끌어가지만, 주어진 대사가 없다. 즉, 누가 연기하느냐에 따라 매번 대사와 캐릭터가 달라지는 열린 구조인 것이다. 극중 노래방 주인은 공연의 오프닝과 엔딩을 관객과 함께 열고 닫을 뿐만 아니라, 장면 중에는 노래방 주인으로, 장면이 끝나면 배우로 돌아와 그 장면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등, 극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또한 무대 한편에는 뜬금없는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 극중 이곳은 '화장실'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배우들은 이곳에서 그네를 타는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마음을 달래고 응어리를 푸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물론 놀이터의 활용 방안 역시 열린 상태이므로, 매 공연 중 배우의 기분에 따라 동선과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 사방이 딱 막힌 작은 방에서 펼쳐지는 열린 무대,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는 바로 이런 예측불허의 기발함과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관객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연극이다.

연극만원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일시 6월 14일~16일 금 16시, 20시, 주말 14시, 17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글 김주연 연극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2019
MASTERS
SERIES4

자
장혜주

아
이고은

자 아 도 취

무용으로 차린 만찬

NARCISSISM

취
최원선

2019. 6. 8 ~ 6.9

Sat. 6pm Sun. 3pm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Seongnam Arts Center Ensemble Theater

주최 성남문화재단 티켓 전석 20,000원 예매 1544-8117 ticket.interpark.com www.snart.or.kr 문의 031-783-8000



2019 마스터즈 시리즈 <해변의 남자> <자아도취>

‘나’를 상실한 남자, ‘나’에 도취된 여자

©Mina Hwang

©Hanfilm

01

02



빌딩숲, 사무실, 교실, 방구석... 틀에 박힌 일상에서 ‘나’를 구원할 두 개의 춤이 여기에 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모험을 떠났던 위대한 탐험가들처럼 새로운 ‘나’를 찾아 밖으로 안으로, 코믹과 진지를 넘나든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보면, 인류의 위대한 모험은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루어졌다. 동쪽에서 서쪽, 즉 해가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대제국을 건설한 아틸라 등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찾아 서쪽을 향했다. 반대로 태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과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동방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6월 성남아트센터에 오를 두 개의 춤은 콜럼버스와 마르코 폴로 만큼이나 대조적이다. 5일의 <해변의 남자>가 ‘나’를 찾아가는 ‘서향’의 모험이라면, 3일 후에 공연되는 <자아도취>는 ‘나’를 지극히 ‘동향’적으로 탐구한다. 작품의 풍이 서구적, 동양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서향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동향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한다. 즉 <해변의 남자>가 고단한 직장인들의 설움, 진짜 하고 싶은 말(것)은 꼭꼭 누른 채 상사에게 치이고 후배에게 쫓기는 일상에서 일탈해 ‘뻑’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자아도취>는 근원을 찾아 자기 ‘안’을 더욱 바라보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익숙한 질문,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 없이는 도저히 출발조차 할 수 없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앞에 두고 ‘자아도취’된 네 명의 안무가가 그들의 두 번째 자아, 즉 춤으로써 답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두 작품은 ‘남성’ 대 ‘여성’ ‘코믹’ 대 ‘진지’ ‘스토리’ 대 ‘이미지’로 설명된다. 먼저 뿔마루무용단의 <해변의 남자>는 초대 예술감독 최정자가 스트리트 댄스보다 단단한 춤, 단단한 몸이 특징인 뿔마루무용단 남성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이다. 1966년에 초연되었으니 벌써 50년 넘게 검증되어온 스테디셀러인데, 신

작 위주의 현대무용 신scene에서 몇 십 년에 걸쳐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작품의 가치를 증명한다. 물론 당시 모습 그대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레 명작 <백조의 호수>가 100년 이상 다양한 안무가의 손을 거쳐 재창조됐듯, <해변의 남자> 또한 김형남 현 예술감독의 제안무로 관객을 만나왔다. 더군다나 이번 오페라하우스 공연은 20~30분 길이의 원작을 1시간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선보이는 자리다. 차세대 주자인 김규진이 조안무로 참여해 3대에 걸친 현대무용 고전 명작의 포스를 거침없이 발산할 계획이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근육질 남자들이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해변을 활보하는, 이 진귀한 광경을 정통 현대무용 그룹의 급이 다른 춤으로 만나보라. 젊은 직장인 혹은 양복 입은 아버지의 잔하고 쓸쓸한 뒷모습부터, 억눌러온 남자들의 범상치 않은 기가 코믹하게 분출된다.

‘나’를 찾아가는 네 가지 여정

<자아도취>는 네 명의 여성 안무가가 각각 자^자, 아^아, 도^도, 취^취를 키워드로 선보이는 무대다. 눈썰미 있는 독자는 이미 눈치를 챌겠지만, 사자성어 자아도취^{自我陶醉}와 이들이 키워드로 삼은 한자 自, 芽, 圖, 醉는 조금 다르다. 큰 주제 아래 네 개의 음을 나눠 갖되, 안무가마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동음이의 한자를 택했다. 현대무용가 장혜주를 시작으로 발레 이고은, 현대무용 김영미, 한국무용 최원선이 차례로 꾸미는 다채로운 무대에서 3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여성 무용가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현대무용가 출신 패션 디자이너 이정민이 참여한다. 초기 단계부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정민은 모든 작품의 의상을 맡아, 연출자인 최고의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와 함께 네 안무가의 소작품을 하나로 묶어낼 계획이다.

01 네 명의 안무가를 만날 수 있는 <자아도취> (왼쪽부터) 김영미, 장혜주, 이고은, 최원선

02 뿔마루무용단 <해변의 남자>

<해변의 남자>
일시 6월 5일 20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자아도취>
일시 6월 8일 18시, 6월 9일 1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 글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2019 동시대이슈展 <바디스캔들>

익숙한 주제와의 아주 색다른 만남

성남큐브미술관의 2019 동시대이슈展 <바디스캔들>은 '바디'라는 공통된 주제를 자신만의 색채로 풀어내는 국내외 작가 7명을 조명하는 자리다. 몸이라는 익숙한 주제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이 선택되어온 저력은, 가장 기본적인 주제임에도 가장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며 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어느 시기엔 반대의 이미지를 갖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주제로서의 몸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탐닉할 만한 대상일 것이다. 그 어떤 주제보다 작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적 탁월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들 역시 그러하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낸다.



01

<바디스캔들>展은 마치 일곱 명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화면에서 열연하는 유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떠올리게 한다. 작가들은 주어진 화면과 시간 안에서 오롯이 자신만의 시선과 철학을 강렬한 이미지로 쌓아 올린다. 모든 것을 응축한 묵직한 세계다. 그들은 몸이라는 공통 주제를 예술가 자신의 모습으로 담고, 사회를 구성하는 유약한 개인으로도 변모시키며 그동안 우리가 지녔던 선입견 너머를 바라보도록 안내한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쏟아내는 이미지는 심오하고, 실험적이며, 강렬하다. 일곱 개의 공간으로 나뉜 전시에서는 가장 먼저 임승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그동안 인간이 지닌 내면을 시각화해온 작가는, 수

많은 군상을 설치했다. 얼핏 보기에는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다가가 관찰하면 웃고, 울고, 화내고, 찡그린 얼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음을 포착하게 된다. 이러한 형상을 통해 작가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사회와 현실,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감춰야 하는 현대인들의 초상을 묘사한다. 전시장 안에는 황호섭의 작품이 놓여 있다. 마치 거대한 추상의 이미지와 같은 작가의 작품은 뒤엉킨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대부분 얼굴이 보이지 않아 표정이나 감정을 읽을 수 없다. 그림에도 거대한 막에 감춰지고 싸여 있는 인물의 고뇌와 고민은 물론 더 나아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까지를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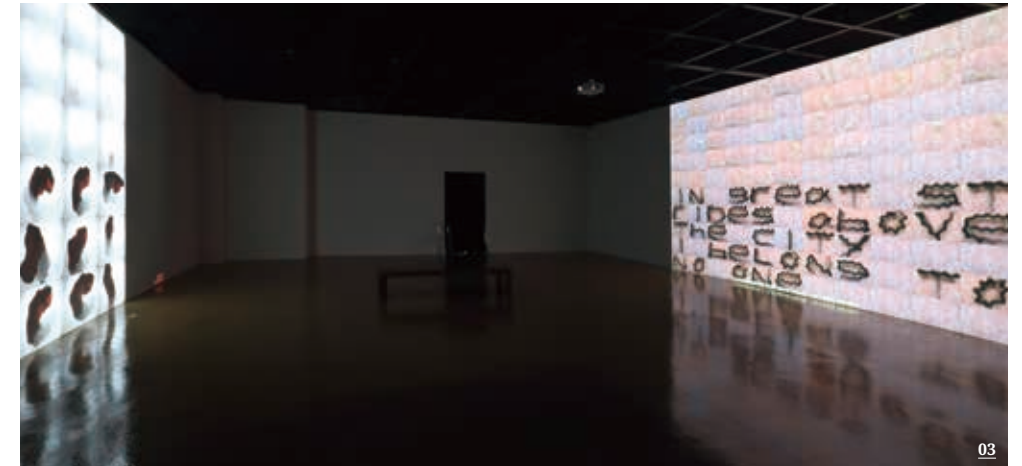


02

01
황호섭,
(좌측부터)
Same girl VI, 2014-2015,
캔버스에 아크릴, 혼합재료,
138×205×15cm
Same girl V, 2014-2019,
캔버스에 아크릴, 혼합재료,
520×130×150cm
Same girl IV, 2014-2019,
캔버스에 아크릴, 혼합재료,
306×140×30cm

02
임승천,
Link, 2014-2019, Mixed media,
25×103×16cm

03
한무권,
POEM, 2019,
UHD color video and sound, 56"



03

몸과 글자를 결합한 **한무권**은 수십 개의 화면 안에서 특정 문자를 반복적으로 새기는 행위를 지속한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축적하며 'integrate/통합 통찰' 'cosmology/우주론, 법칙이 있는 것' 'cyclical/돌고 도는 것' 'epistemology/인식론, 배워서 아는 것' 등 철학적인 주제를 표면 위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작가는 이전에 존재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소통에 대해 언급한다.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작품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박소빈**의 작품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박소빈은 끊임없이 구불거리는 선들을 생산한다. 작가는 거침없는 드로잉을 통해 신화와 전설의 대상들에

게 생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완성된 주인공들은 캔버스라는 제한된 화면을 넘어 공간을 유영하는 듯 보인다. 전시장 한편에 그동안의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과 그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를 함께 놓아두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박소빈의 작품이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면, **허원창**의 작품은 매우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심신이 미약한 이들을 위해 경고 문구를 안내할 정도로, 그의 작품은 마치 주술사의 행위를 보는 것처럼 기이하고 기괴한 충격을 안긴다. 그런가 하면 **흑표범**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들에 주목한다. 광주에 위치한 옛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펼친 퍼포먼스 영상을



04
박소빈,
The Creation of Female Myth,
2012, Pencils on the paper,
Bronze powder, 1,500×150cm



05
허원창,
(왼쪽부터)
한 개의 갈비뼈,
2008, C-Print, 126×160cm
한 개의 갈비뼈,
2008, C-Print, 126×160cm
한 개의 갈비뼈,
2018, C-Print, 126×160cm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보여준다. 또 작가이자 개인으로의 감정뿐 아니라 유가족의 상황을 대변하며 세월호 사건에 드리운 상실과 그리움,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영호**는 분장과 표정, 몸짓 등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사진에 쏟아내고, 그 찰나를 포착한다. 한편의 연극 무대처럼 단 하나의 장면을 위해 쌓아온 수많은 시간과 노력 안에서 작가는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 그 형상이 때로는 신화속 인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모호한 경계를 가리키며 작가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성남큐브미술관의 '동시대이슈展'과 '동시대미감展'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다루는 주요 모티프를 비롯하여 물리적·심리적 미감을 선보이는 작가와 작품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주제기획전이 다. '동시대이슈展'의 일환으로 열린 <바디스캔들>展 역시 몸이라는 주제를 조각과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끄집어낸 작가들의 선명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들이 표현하는 '바디'는 단순히 인간의 몸 그 이상의 감각을 넘어, 작가 자신이 다른 세계까지 향한다는 점에서 깊고 무거운 여운을 남긴다. 그렇기에 관람객 스스로 우리의 몸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후 전시장을 찾는다면, 작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06
흑표범,
정오의 목욕, 2011,
Performance video
(촬영 연출: 데프/촬영: 이랑,
김비오, 이혁준, 뽀스신, 김영주,
박세정/피아노: 이상록), 8'40"



07
강영호,
턱을 기르는 왕, 2009,
Pigment ink on fine art paper,
160×150cm 외



2019 동시대이슈展 <바디스캔들>
일시 3월 22일~8월 25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141~9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찍고
창극

옹녀
MADAM
ONG

2019.
7.19(금) 20:00
7.20(토) 15: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R 4만원 S 2만원
주최 (재)성남문화재단
문의 031-783-8000

예술감독 유수정
극본·가사연출 고선웅
작창·작곡 음악감독한승석

- 32 Cinema Classic
영화 <버드맨>과 라흐마니노프
- 34 Book
이담의 책
- 36 Art+Trend
일반인 작가와 독립 출판
- 38 Art+Trend
유튜브를 통한 일상 공유 '브이로그'
- 40 Art+Place
아트 시티를 가다: 뒤셀도르프
- 48 Art+Space
폐산업시설을 통한 도시재생
- 57 Book in Book
벤치에서...



ART
CURA-
TOR



라흐마니노프

영화 <버드맨>과 라흐마니노프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멕시코 출신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Alejandro Gonzalez Inarritu는 어떤 영화든 극한까지 몰고 가는 감독이다. 2000년 장편 데뷔작인 <아모레스 페로스 Amores perros>부터 범상치 않았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자동차 추돌 사고를 먼저 보여준 뒤 엮힌 실타래를 풀듯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의 사연을 하나씩 펼치는 솜씨가 인상적이었다. 한데 뭉쳐 있던 세 가지 이야기가 흩어지면서 옴니버스 영화가 되는 구조는 '멕시코판 펄프 픽션'을 연상시켰다.

후속작으로 가면서 이야기의 규모나 대담성 모두 커졌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세 쌍의 남녀가 겪는 운명을 보여준 <21그램>²⁰⁰³이 대표적이다. 과거인 듯하면 현재로 넘어가고, 미래인 것 같으면 다시 과거나 현재로 돌아와 있는 비선형적 구조는 영화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실험과도 같았다. <21그램>에서 실험 주제로 삼았던 것이 시간이었다면, <바벨>²⁰⁰⁶에서는 공간이었다. 모로코의 사막에서 우연히 일어난 총격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등장인물들이 인과연속을 통해서 하나씩 묶어나간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영화적 발상은 역설적으로 '바벨'이라는 제목과도 잘 어울렸다. 무엇이든 하나로 엮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만 같았던 이나리투 감독의 영화 세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 계기가 된 작품이 <버드맨 Birdman>²⁰¹⁴이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묶어서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시적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미시적 방법론으로 전환한 것이다. <버드맨>에서 그가 탐구 주제로 삼은 장르가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점도 이채로웠다. 한때 할리우드 영화의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퇴락한 배우 신세인 '리건'(마이클 키튼)이 <버드맨>의 주인공이다.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을 원작으로 하는 브로드웨이 연극 개막을 앞두고도 평단의 혹평과



버드맨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출연 마이클 키튼, 에드워드 노튼, 엠마 스톤 외

홍행 부진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설상가상으로 리허설 도중 동료 배우마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간다. 대역으로 무대에 설 만한 배우들을 긴급 섭외하지만 인기스타들은 모두 <어벤져스>나 <엑스맨> 같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찍느라 바쁘다.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캐스팅이다. 극중 슈퍼히어로 영화인 <버드맨>에 출연했던 배우 리건 역에 마이클 키튼을 기용한 것이다. 실제 키튼은 전직 코믹 배우였지만,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배트맨>¹⁹⁸⁹과 <배트맨 리턴즈>¹⁹⁹²에서 주인공 배트맨 역을 맡으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관객들은 <버드맨>을 보면서도 <배트맨> 시절의 키튼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버드맨>은 흥미로운 범작¹⁾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영화에서 이나리투는 브로드웨이 소극장을 배경으로 또 하나의 형식적 실험을 감행했다. 영화 전체를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의 카메라 촬영으로 이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극단적 롱 테이

크long take 기법을 차용한 것이다. 굳이 '차용'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건 2시간에 이르는 상영 시간을 분할 촬영이나 편집 없이 원 테이크one take로 촬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두운 극장 복도나 뉴욕의 밤하늘을 비추는 순간, 카메라를 잠시 멈춰두고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쉴 틈을 준다. 배우들의 꿈과 욕망, 좌절이 뒤엉킨 극장 안팎을 카메라가 집요하게 쫓아다닐 때, 그 곁을 따라다니는 독주 악기가 드림이다. 오케스트라나 밴드에서도 언제나 뒷자리인 타악기가 영화음악의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다. 그런 의미에서 <버드맨>은 영화적 실험인 동시에 음악적 실험이기도 했다. 이 실험을 떠맡은 것은 멕시코 출신의 드럼 연주자 안토니오 산체스였다. 그는 미국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재즈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가 이끄는 그룹에서 활동한 뒤 2007년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영화음악의 제작 방식도 촬영 못지않게 독특했다. 대개 영화음악은 촬영을 마친 뒤에 작곡에 들어간다. 하지만 <버드맨>은 산체스의 즉흥 연주로 음악부터 녹음한 뒤, 이 음악을 배우들에게 들려주면서 촬영을 진행했다. 산체스는 "영화는 음악을 먹고 자랐고, 음악은 상상력을 먹고 자랐다"고 제치 있게 요약했다. 원 테이크로 영화 전체를 찍기가 힘든 것처럼, 드럼만으로 영화음악을 채우기는 난망한 노릇이다. 그 여백을 채워주는 것이 클래식 작품들이다. <버드맨>에는 드럼 솔로 외에도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이나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말러 교향곡 9번,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등이 넘쳐흐른다. 하나같이 후기 낭만주의와 인상파 음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긴 극심한 내면 불안이나 자아 분열의 영화에는 자의식 과잉의 음악이 제격일 것이다. 영화는 리건의 자살 기도와 실패 등 희비극적 요소로 온통 뒤범벅되어 있다. 리건이 진실로 원했던 건 절망이었을까, 희망이었을까. 희극이었을까, 비극이었을까. 마지막까지도 감독은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때 다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 흐른다. 2015년 <버드맨>은 아카데미상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 등 4관왕에 올랐다. 영화는 희극인지 비극인지 알쏭달쏭했지만, 확실히 감독의 영화 인생은 희극이었다.

글 김성현 조선일보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등 다양한 책을 펴냈다. 최근작으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모차르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재조명한 『모차르트』가 있다.
사진 제공 이십세기 폭스 코리아

이달의 책

명사들의 회고록

회고록이나 자서전은 대부분 ‘뻔한’ 구조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겪은 끝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식이다. 이런 흔한 공식에서 조금 벗어난 회고록과 자서전들을 소개한다. 국적도 한국부터 일본, 영국, 미국으로 모두 다르고, 직업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조금은 ‘덜 뻔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이국종 지음
흐름출판
1권 438쪽, 2권 378쪽
각 15,800원

골든아워

중증외상분야 전문가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회고록.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중증외상 환자들을 다루는 수술실의 모습부터 아주대에 중증외상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나 병원 밖에서는 알기 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 외적인 문제들까지 고발하고, 고백하고, 되돌아보는 책이다.

일반적인 회고록과는 달리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거의 없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국종 교수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의대 재학 시절 해군에 일반 병으로 복무했던 시절, 그는 뱃사람들로부터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을 주장하며 굽히지 않는다’ ‘나쁜 보직을 감수할 자세만 되어 있으면 굳이 타협할 필요가 없다’ 등의 자세를 배운다. 그는 바다 위에서 배운 단순한 논리가 인생의 방향타가 됐다고 고백한다. 직장 생활을 일찍 끝낸 아버지에게 지급된 상이군 인용 노란색 의료보호카드 이야기와 환영받지 못하던 노란카드 환자를 여느 환자와 똑같이 대해준 병원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며 그 병원에서 의사가 다른 개인의 인생에 미칠 수 있는 무게를 생각했다는 부분도 인상적이다.

1, 2권 합해 80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이지만 군더더기 없는 글 솜씨 덕분인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소재 때문인지 부담스럽지 않게 책장이 넘어간다.

글 황희경 연합뉴스기자

고고미술사를 전공하고 2002년부터 연합뉴스 기자로 재직 중이다. 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글쓰기를 모색하고 있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마스야 무네야키 지음
장은주 옮김
위즈덤하우스, 428쪽
17,800원

일본의 서점 중심 복합 문화 공간인 ‘츠타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서점이 벤치마킹한 곳이다. 관광객들이 들려야 할 ‘핫 스팟’으로도 유명한 이곳을 만든 마스야 무네야키 CCC(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그룹 사장이 자신의 비즈니스 철학을 들려준다. 직원들에게 비전과 가치관을 전하고 싶어 시작한 블로그에 10년간 올렸던 1천500여 건의 글 중 골라 모은 글들을 묶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반적인 회고록과는 달리 ‘경영’ ‘조직’ ‘기획’ ‘가치’ ‘시선’이라는 소주제별로 글을 엮었다. 마스야는 “CCC는 기획 회사”라면서 무엇보다도 ‘기획’을 강조한다. ‘기획력은 경험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다’는 식의 기획에 대한 독특한 통찰insight이 흥미롭다.

제임스 다이슨 자서전

제임스 다이슨, 자일스 코렌 지음
박수찬 옮김
미래사, 458쪽
16,000원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날개 없는 선풍기. 혁신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제품으로 유명한 영국 가전회사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5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헤어드라이어에도 선뜻 지갑을 열게 하는 다이슨 브랜드가 있기까지 스토리를 풀어낸다. 산업디자인을 공부한 다이슨은 정원용 손수레를 시작으로 정원용품 중심의 제품을 내놓는 ‘커크-다이슨’이란 회사를 세웠다. 그러다 우연히 먼지봉투 방식 청소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 아이디어를 냈지만, 회사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난다. 이후 자신의 집 마구간에서 5천127개에 이르는 시제품을 만든 끝에 오늘날 다이슨 청소기의 모태가 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한다. 메모 금지, 양복 입지 않기,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 뺨기 등 다이슨의 독특한 경영 철학도 소개한다.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소니아 소토마요르 지음
조인영·현낙희 옮김
사회평론, 512쪽
18,000원



히스패닉,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딛고 2009년 단 9명만이 선택되는 미국의 종신 연방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회고록.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의 딸이었던 그는 일곱 살 때 소아당뇨 진단을 받았고 가족 대부분은 사실상 영어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우수한 성적과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명문 프린스턴대에 진학했지만 마냥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다.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예일대로 스쿨을 거쳐 뉴욕주 검찰청에서 일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겪어야 했다. 이야기는 소토마요르가 연방대법관이 되기 훨씬 전인 1992년 연방법원 판사가 되는 데서 끝난다.

일반인 작가와 독립 출판

사적인 출판의 시대

최근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꾸준히 자리를 차지하는 서적이 있다. 바로 일반인 작가들의 에세이다. 일반인 작가의 출현은 출판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며, 책 읽는 문화는 글 쓰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에세이에 관해서라면 두 부류의 작가가 있다. 에세이도 쓰는 작가와 에세이만 쓰는 작가. 하루키는 에세이도 쓰는 작가다. 그의 소설만큼이나 그의 에세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루키뿐일까, 한국에도 그와 같은 작가는 많다. 김영하, 김훈, 김연수, 김중혁 등 많은 소설가, 또는 시인이 '본업'인 시나 소설을 쓰는 사이사이에 에세이를 선보인다. 그들의 에세이는 글 쓰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매력도 있지만, 소탈한 형식 안에서 빛을 내는 문체의 매력이 더욱 크다. 무엇보다도 에세이는 사생활의 영역이다. 유명한 작가들의 사생활은 그 작가의 팬들에겐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할 정보인 동시에 작품의 이면과 배경을 알 수 있는 힌트 같은 장르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 에세이는 독립적이기보다는 부수적이고, 중심적이기보다는 주변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 오죽하면

에세이는 이름값이 전부라는 말이 있을까. 유명하지 않으면 눈에 띄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인지도에 따라 책의 운명이 결정되는 에세이 출판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무명의 작가가 썼지만 성공한 에세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출간하며 출판계의 호평을 받은 김흔비 작가가 두 번째 에세이집 『아무튼, 술』을 냈다. 『아무튼, 술』은 취향을 중심으로 한 에세이만 출간하는 '아무튼' 시리즈를 통해 나왔다. 무명의 작가가 연이어 두 번째 에세이를 출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에세이가 그만큼 호평받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무튼' 시리즈는 소설가나 시인을 필자로 두기도 하지만 오로지 에세이만 쓰는 작가들의 참여도 두드러지는데, 독자들에게 더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건 후자에 가깝다. 김흔비만이 아니다. 『힘빼기의 기술』에 이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까지 사랑받고 있는 김하나 작가를 비롯해 『언어의 온도』를 쓴 이기주 작가 등 에세이는 무조건 작가 인지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은 철지난 편견쯤으로 굳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독자들은 에세이도 쓰는 작가보다 에세이만 쓰는 작가를 더 선호한다.

에세이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 인지도가 한쪽 날개라면, 다른 한쪽 날개는 잡다한 삶에 대한 재발견이다. 삶은 소중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 많은 사실을 대체로 잊고 지내는 우리에게겐 삶의 매력을 알려줄 또 다른 '인생 모험가'들이 필요하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는 여자 축구 클럽에서의 에피소드를 통해 개인주의자로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공동체의 삶과 조화해나가는 과정을 몸의 언어로 보여준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는 '나 혼자 사는 시대'의 장점과 한계를 모색해나가는 과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스케치한다. 에세이는 사생활을 넘어 '인생'의 영역이다. 인생의 발명가들이 에세이 출판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건 부속 장르로서의 에세이가 독립적인 장르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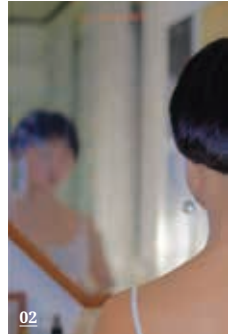
에세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일반인 작가의 출현만으로 끝나지 않고 출판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무명 저자뿐만 아니라 무명 출판사, 즉 독립 출판사의 성공 사례도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다. 이슬아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연재 플랫폼으로 활용해 독자를 모으고 직접 출판사를 만드는가 하면, 책을 출판한 뒤에는 유통까지 스스로 소화하며 그야말로 독립 출판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 결과도 대성공. 1인 출판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던 이슬아는 이제 에세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가 되었다.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도 출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독립 출판의 증가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출판publication 개념이 더 이상 대중성public으로 대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팬덤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출판의 시대가 이만큼 가까이 와 있다. 지금 우리는 전에 없이 다양한 크기의 바퀴로 굴러가는 출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나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출판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중요하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성장하는 자아가 많다는 뜻이기도 할 테니까. 많은 사람이 책을 읽었던 그때 그 시절을 부러워하는 것도 이제 정말 지겹다 싶은 시점에서, 끝나 버린 줄만 알았던 문화가 지금 이렇게 사적인 출판의 얼굴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 작가가 된 일반인이 많다는 말은 철학이 된 인생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1인 출판의 시대는 사회의 건강함을 증명한다. 신변잡기의 철학이 꽃피는 시대, 인생에 끌려 다니지 않는 작은 천재들을 상상하자 어디서인지 모르게 용기가 솟는 것 같다.

01
(왼쪽부터)
김하나, 황선우 작가의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흔비 작가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02
이슬아 작가의
『일간 이슬아 수필집』



01



유튜브를 통한 일상 공유 '브이로그'

브이로그라는 현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는 브이로그^{Vlog}다.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을 말한다. 영상 속 유튜버들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시리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서두르며 출근길에 오른다. 직장에서는 때때로 간식을 챙겨 먹으며 업무를 하고, 퇴근과 동시에 영상은 끝이 난다. 새로울 것도, 특별한 것도 없다. 어제, 오늘의 나의 일상과 비슷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타인의 일상을 챙겨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 #일상, #하루일과, #데일리. 최근 몇 년 세에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장르 중 하나로 떠오른 브이로그^{Vlog}를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다. 제시한 해시태그에서 알 수 있듯, 브이로그는 '나의 일상을 담는다'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콘텐츠다. 지루하기만 한 일상이 어떻게 콘텐츠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이 무색하게도, 하루에도 새로운 브이로그 영상이 계속 올라온다. 궁금해서 눌러보면 또다시 누군가가 밥을 먹고 있거나, 거리를 걸으며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다.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소리다.

브이로그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궁금해한다. 왜 굳이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가. 이런 궁금증은 쏟아지는 브이로그 콘텐츠들 앞에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한글로 '브이로그' 혹은 영어로 'Vlog'라고 검색하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최신 영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브이로그들이 공유하는 유사성은 왜 이 콘텐츠가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고등학생, 미국의 고등학생, 일본의 고등학생이 올린 영상이 있다. 영상 제목만 보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내세워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것 같다. 그러나 막상 눌러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학교 가는 길, 공부하는 모습, 머리를 묶거나 화장을 하는 방법, 배달 음식의 맛, 코인 노래방에서 놀기 등 매일같이 반복되는 학생들의 일상이 다른 나라에 산다는 이유로 다른 콘텐츠처럼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다. "저와 비슷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삶을 산다. 생활 환경이 전혀 다른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르고, 음식을 먹고, 집을 청소한다. 각자의 집이나 쓰는 물건이 지역의 특성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브이로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친구를 맺자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좀 더 예쁘게 꾸며놓은 콘텐츠를 보고 해당 크리에이터의 팬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사실은 같은 욕망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인간들이 보내는 하루는 24시간으로 동일하며, 그 시간 속에서 자기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맞는 일을 한다. 내가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던 일상은 뽀얀 필터가 씌워진 인기 브이로그를 통해 위안을 얻고, 별다른 편집 효과 없이 게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나만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안도를 하게 된다.

나아가 브이로그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공유하는 여러 세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10대의 브이로그를 30대가 보면서 "뽀뽀하고 귀엽다"며 "나의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는 감상을 남긴다. 반대로 10대는 30대의 브이로그를 보고 "어른들도 '코노(코인 노래방)'에 가냐"며 재미있어한다. 서로의 브이로그를 보며 교차되는 과거의 추억이나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삶의 방식에 대한 기대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현실과 밀접하게 다가온다.

글 박희아 웹매거진 (IZE^{이즈}) 기자

대중가요, 아이돌, 드라마, 배우 등 대중문화 전반에 관한 다양한 글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이돌 메이커』 『아이돌의 작업실』이 있다.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팬들을 끌어 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기차 여행을 떠난 연예인들을 보며 그들을 나와 다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에 브이로그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인스타그램이 사진 몇 장을 올려놓고 나의 기쁜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다면, 브이로그는 5분에서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사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맥락까지 드러내며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서 브이로그는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고민하게 만든다. 똑같은 일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더라도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이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턱 밑으로 몸이 움직이는 모습만을 담는다. 얼굴을 아예 드러내고 자신의 빼어난 외모나 꾸미기 방법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에 신체 부위 중에서 오로지 손이나 발만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편집 방식도 제각기 다르다.

음악을 트는 사람, ASMR 영상처럼 음식을 씹는 소리나 주변의 물건을 만지는 소리 등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소리만을 부각시키는 사람, 화면을 흑백으로 처리한 사람 등 모두가 각자의 아이디어와 제작 여건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1020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학생부터 연예인까지, 자신의 하루를 찍어 올리지만 하면 콘텐츠가 된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다들 비슷한 삶을 산다는 위안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를 전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브이로그인 것이다. 남들과 소통은 하고 싶지만 나를 알려려면 경쟁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브이로그 안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단언컨대, 지금 브이로그보다 현실적인 콘텐츠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들과 같은 나'와 '남들과 다른 나'를 모두 전시해야만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 그게 우리의 삶 아니던가.

아트 시티를 가다: 뒤셀도르프

독일 현대미술의 메카, 뒤셀도르프

독일 서쪽, 라인강 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Düsseldorf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주의 주도로서, 통일 전까지만 해도 경제와 상공업, 문화의 중심지였다.

문학인들에겐 하인리히 하이네의 고향으로 기억되겠지만 미술인들에겐 20세기 독일 현대미술의 메카가 바로 뒤셀도르프다.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미술가들이 이 도시에서 수학하며 활동했기 때문이다. 독일 현대미술의 발달을 주도하고 성장시킨 이 도시에 설립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립 미술관은 이제 3관 체제를 갖추고 독일을 넘어 국제 미술계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Jens Willebrand, 2011 ©Kunstsammlung NRW



01 칸딘스키의 작품이 전시된 K20의 3층 전시실

02, 03 건물 외관의 곡선은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넘실대는 물결 모양의 천장은 유리로 마감해 자연광을 받아들인다



02 ©Kunstammlung NRW

독일 현대미술을 이끄는 K 군단

지금은 베를린이 예술의 도시로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원래 독일 현대미술의 산실은 뒤셀도르프였다. 특히 18세기에 설립된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Kunstakademie Düsseldorf는 요제프 보이스를 비롯해 안젤름 키퍼, 게르하르트 리히터, 지그마르 폴케 등 독일 현대미술 거장들을 배출한 독일 최고의 명문 미술학교다. 토마스 루프,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칸디다 회퍼 등 베허Becher 학파로 불리는 사진작가들까지 죄다 이곳에서 수학했다.

현대미술의 도시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술관은 단연 K20과 K21이다. 화장품이나 자동차 모델명을 연상시키는 이 특이한 미술관의 정식 명칭은 쿤스트잠롱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Kunstammlung Nordrhein-Westfalen, 이하 쿤스트잠롱)이지만, 줄여서 K20과 K21로 불린다. ‘쿤스트잠롱’은 영어로는 아트 컬렉션, 우리말로 미술 소장품이란 뜻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주립 미술관이다. 그럼 K20과 K21은 어떤 차이일까? K는 미술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 ‘쿤스트Kunst’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K20은 20세기 미술을 보여주는 곳이고, K21은 21세기 미술, 즉 동시대 미술을 보여주는 미술관인 셈이다. 이렇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립 미술관은 K20과 K21로 불리

글·사진 이은화

미술 평론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객원교수, 융합미술연구소 크로싱 소장.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런던 소더비 예술대학원에서 현대미술학, 맨체스터 대학원에서 미술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표 저서로 『그랜드 아트 투어』 『가고 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03

©Jens Willebrand ©Kunstammlung NRW

는 두 개의 주 미술관 건물, 그리고 부속 건물 슈멜라 하우스Schmela Haus까지 3개 관을 거느린 상당히 큰 규모의 미술관이다. 쿤스트잠롱이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도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소장품 덕분이다. 1961년 주정부가 파울 클레의 작품 88점을 사들이면서 시작된 쿤스트잠롱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비밀의 국립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정말 국가 기밀로 하고 싶을 정도로 뛰어난 소장품 목록을 갖추고 있다. 파울 클레, 루트비히 키르히너를 비롯한 독일 표현주의 미술부터 파블로 피카소, 바실리 칸딘스키, 잭슨 폴록, 앤디 워홀, 요제프 보이스를 거쳐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카타리나 프리치Katharina Fritsch, 토마스 슈테Thomas Schütte 등 동시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관의 이름처럼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서구작가들의 작품을 총망라한다. 특히 20세기 유럽 모던 아트와 1945년 이후 미국 현대미술 컬렉션의 토대는 이미 1960년대에 완성된 것으로, 당시로서는 모던 아트 중심의 수준 높은 컬렉션을 구축한 독일 내 유일한 미술관이었다.

20세기 미술의 전당, K20

1986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첫 미술관으로 개관한 K20은 뒤셀도르프 시내 중심가인 그라베 광장Grabbplatz에 위치해 있다. 그라베 광장은 K20 외에도 1967년 개관한 현대미술 공간인 쿤스트할레Kunsthalle와 1960년대에 설립된 유서 깊은 상업 화랑 한스 마이어 갤러리Galerie Hans Mayer 등이 함께 있어 뒤셀도르프의 미술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광장 입구에 들어서면 K20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유기적 곡선을 이룬 검은색 화장암 파사드가 무척 인상적이다. 외관의 곡선은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통일감을 주고, 넘실대는 물결 모양의 천장은 유리로 마감해 자연광을 최대한 받아들여 준다. 미술관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공간이다. 1층은 기획전시실과 서점, 아트숍 같은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고 2층과 3층은 쿤스트잠롱의 소장품을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이다. 천장이 높은 2층 전시실에선 앤디 워홀의 유명한 캠벨 수프 그림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만화 같은 대형 팝아트 그림

04
미술관 뒤 파울 클레 광장에서 만날 수 있는 세라 모리스의 대형 타일 벽화. 27미터에 달하는 이 알록달록한 벽화는 K20의 상징과도 같다



05
K21 내부. 돔 모양의 유리 천장으로 자연광이 그대로 들어온다. 마치 중세 시대 건물을 연상시키는 아치형 복도가 인상적이다

06
쿤스트잠룡의 두 번째 전시관 K21. '황제의 연못'이란 뜻의 '카이저타이히'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



05 ©Ralph Richter ©Kunstsammlung NRW



들,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대변하는 잭슨 폴록의 거대한 추상화, 영국 대지미술가 리처드 롱의 대형 설치 조각 등 20세기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3층 전시실은 유럽 근대미술부터 다양한 사조의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요제프 보이스의 말년작 <왕궁, 1985>,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열 개의 대형 컬러판, 1966-71/72>도 이곳에 전시돼 있다. 미술관 뒤 파울 클레 광장에는 미국 작가 세라 모리스 Sarah Morris의 27미터에 달하는 대형 타일 벽화가 세워져 있다. 벌집 모양 혹은 색종이 접기를 연상시키는 이 알록달록한 대형 벽화는 미술관 정면의 화강암 파사드와 함께 K20의 상징이다.

21세기 미술의 집결지, K21

2002년 쿤스트잠룡의 두 번째 전시관으로 개관한 K21은 '황제의 연못'이란 뜻을 가진 '카이저타이히 Kaiserreich'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 K20에서 북쪽으로 약 1.5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도보로도 이동 가능하다. 미술관 주변엔 거대한 연못도 있고 나무도 많아서 도심이지만 한적하고 운치 있는 시골 같은 느낌이다. '슈텐데하우스 Ständehaus'라 불리는 미술관 건물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우면서도

웬지 완고한 인상이 꼭 독일 관청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1988년까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사당이었던 곳이다. '슈텐데하우스'라는 단어도 옛날 신분제 사회 때 의사당이란 뜻으로 쓰이던 독일어다.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의 꼭대기는 투명한 유리 돔으로 덮여 있어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붉은색, 회색 등의 벽돌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조그은 칙칙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내부는 화이트 톤의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다. 중앙 홀을 중심으로 4개의 날개관이 둘러싼 구조로, 돔 모양의 유리 천장으로 자연광이 그대로 들어와 내부가 무척 밝고 화사하다. 미술관은 지하층을 포함해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기획전을 위한 공간, 지상의 4개 층은 쿤스트잠룡의 소장품을 보여주는 상설전 공간이다. 전시장들을 이어주는 복도들은 고딕 양식 건물처럼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 마치 중세식 현대 건물에 들

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러 개의 방들로 이어진 각 전시실에선 카타리나 프리치 Katharina Fritsch나 후안 무뇨스 Juan Muñoz 같은 유명 현대미술가의 작품부터 아직 국제 무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독일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교수 카타리나 프리치의 <남자와 쥐>라는 작품은 유독 눈길을 끈다. 거대한 생쥐가 침대에 누운 사람을 밟고 있는 장면은 악몽을 꾸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추상적인 이미지를 거의 쓰지 않는 작가는 이렇게 생쥐나 뱀, 교황, 성모 마리아, 산타클로스 등 잘 알려진 이미지를 대형 조각으로 제작한다. 그의 조각은 현실의 모사물들이지만 교묘한 변형을 거치거나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것들이어서 세상에 대한 풍자로 읽히기도 한다. 유리로 된 돔은 건물의 옥상이자 대형 설치미술을 위한 전시장이



07

©Studio Tomás Saraceno 2013 ©Kunstsammlung NRW

07
K21 최고의 흥행 전시, 토마스 사라세노의 <궤도에서>. 지상 25미터 높이 돔 천장 바로 아래에 그물망을 설치해 직접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한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우주 상공을 걷는 듯한 특별한 스틸을 선사한다

08
K21에는 동시대 현대미술 작가들의 인상적인 작품들이 가득하다. 카타리나 프리치의 <남자와 쥐>



46

다. 2013년 6월부터 시작된 토마스 사라세노Tomás Saraceno의 전시 <궤도에서In Orbit>는 관람객들에게 인기 폭발이다. 자연광이 비치는 돔 천장 바로 아래에 하얀색의 대형 공과 그물망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직접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한 관객 참여형 작품이다. 거미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는 이 대형 그물망은 지상 25미터 높이에 2,500제곱미터 넓이로 펼쳐져 있어 우주 상공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과 스틸을 선사한다. 인기에 힘입어 몇 차례 연장 전시를 거듭하다 막을 내렸으나 관람객들의 요구로 2017년 3월부터 재오픈해 현재까지 전시 중이다.

계속 진화하는 쿤스트잠룡

독일 최초의 상업 갤러리 건물인 슈멜라 하우스는 2009년 쿤스트잠룡의 세 번째 전시관으로 결합했다. 이곳은 미술품 딜러였던 알프레트 슈멜라Alfred Schmela가 1957년 뒤셀도르프 구도심에 설립한 슈멜라 갤러리가 전신으로, 1971년 현재 위치에 상업 갤러리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슈멜라는 전후 독일 현대미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딜러다. 그는 당시 무명이었던 이브 클랭Yves Klein

의 모노크롬 회화를 독일에 처음 소개했고, 역시 무명이었던 요제프 보이스의 잠재성을 알아채고 첫 개인전을 열어준 인물이다. 1965년 보이스가 얼굴에 꿀과 금박을 뒤집어쓴 채 죽은 토끼에게 자신의 그림을 2시간 동안 설명한 첫 퍼포먼스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가 탄생한 장소가 바로 슈멜라 갤러리다.

쿤스트잠룡의 분관으로 영입된 이후 이곳은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나 이벤트, 리허설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덜란드 건축가알도 판 아이크Aldo van Eyck가 설계한 복잡하게 얽힌 5층 구조의 건물은 이곳에서 전시되는 실험적인 작품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이렇듯 쿤스트잠룡은 뛰어난 컬렉션과 획기적인 전시 외에도, 특별하고 유서 깊은 각각의 장소에서 20세기부터 21세기 미술까지를 총망라하며 독일을 대표하는 최고의 현대 미술관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쿤스트잠룡 역사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설립 이래 지난 58년간 관장이 딱 세 번만 교체됐다는 점이다. 초대 관장을 지낸 베르너 슈말렌바흐Werner Schmalenbach는 저명한 미술 비평가로 1962년부터 1990년까지 28년간 재임했다. 2대 관장이었던 아르민 츠바이테Armin Zweite 역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7년을 재임했고, 2009년에 새로 임명된 3대 관장 마리온 아커만Marion Ackermann은 2016년까지 근무하다 드레스덴 시립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그녀는 44세의 첫 여성 관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큐레이터 출신 미술사가 수잔네 겐샤이머Susanne Gaensheimer가 수장이 되어 3개 관을 이끌고 있다. 별 탈 없으면 그 역시 선임 관장들의 길을 따를 것이다. 국공립 미술관장 임기가 2~3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사립이 아닌 국공립 미술관의 관장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 있는 수장을 뽑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한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시민, 이를 가능하게 한 운영과 제반 시스템이 놀라울 따름이다.

초대 관장은 수준 높은 모던 아트 컬렉션을 구축해 20세기 미술의 전당인 K20의 정체성과 토대를 마련했고, 2대 관장은 K21을 통해



09 ©Andreas Endermann, 2017 ©Kunstsammlung NRW



10

09
2017년 관장으로 취임한 수잔네 겐샤이머. 쿤스트잠룡은 설립 이래 58년간 관장이 딱 세 번만 교체되었다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그만큼 긴 호흡의 정책과 비전을 실천해왔다는 뜻이다

10
쿤스트잠룡의 세 번째 전시관 슈멜라 하우스. 독일의 대표 큐레이터 알프레트 슈멜라가 1957년에 설립한 슈멜라 갤러리가 그 전신으로, 현대미술사의 굵직한 역사가 깃든 곳이다

컬렉션을 컨템퍼러리 아트와 조각까지 확장했으며, 3대 관장은 실험적인 미술을 위한 슈멜라 하우스를 영입해 젊고 혁신적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선임 관장들은 나름대로의 비전과 소장품 정책으로 쿤스트잠룡을 지역 미술관이 아닌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한 일등 공신들이다.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이 되기 위해선 최고의 리더도 필요하겠지만 그리더가 정책과 비전을 잘 이끌고 실현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밀어주는 국가적 시스템과 자본력, 그리고 국민적 신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쿤스트잠룡은 이 모든 것을 갖춘 몇 안 되는 미술관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함부르크의 랜드마크 엘프 필하모니. 부둣가 재개발 지역의 낡은 창고를 리모델링했다
Elbphilharmonie © Maxim Schulz

폐산업시설을 통한 도시재생

폐산업시설의 리모델링, 그 이상의 가치¹

폐산업시설이란 오랫동안 사용되다 산업 기능을 잃은 시설을 뜻한다. 그런데 모든 폐산업시설들이 리모델링의 대상으로 선택받진 못한다. 리모델링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남겨둘 이유를 가져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산업 시설이 있는 국가나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그 의미가 뛰어날 때이다. 이 경우 해당 산업의 기술이나 연관된 기계와 시설들이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공간과 경관 차원에서 기념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축·조형적으로 뛰어난 기법이나 양식이 적용된 경우이다. 세 번째는 강한 산업적 관성과 함께 연고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긍정적인 참여, 즉 '타 용도로 쉽게 대체하거나 해체하면 안 된다'는 지역(민)의 목시적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를 가진 폐산업시설을 일반의 것과 구분하여 '산업유산'이라 부른다. 즉, 산업유산은 '원래의 산업 기능은 잃었지만 국가 또는 지역 산업 발달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가진, 남겨두거나 변화를 도모하였을 때 가치가 큰 산업 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다².



01

©Francesco Carovillano/GNTB

이 차가운 재질의 유리나 철, 알루미늄 등과 만나 발산하는 매력은 참으로 묘하다. 아름다운 항구 한쪽에서 공해 물질을 내뿜던 공장이 해양문화센터로, 기계 소음과 분진 덩어리였던 공장이 호텔이나 예술촌으로, 노동쟁의와 폭발 사고로 시끄럽던 광산촌이 산업 디자인센터로 변신한다.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던 발전소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바뀌기도 하고, 제철소가 흥미로운 환경문화공원으로 재활용된다. 산업유산은 정해지지 않은 틀 속에서 전과 다른 새로운 제3의 공간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유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트렌디한 신기능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 때문이다. 포용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 '문화'와 '예술'이 대표적이다. 문화와 예술이 산업유산과 만난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문화예술을 펼치는 퍼포먼스 장소로 산업유산이 활용되는 일이다. 또 예술 작품의 전시장,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공간, 예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습의 장,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삶을 표현하고 영위하는 공간, 산업 시설 자체가 예술인 곳, 일정 기간 문화예술 축제장으로 변신하는 터 등, 정말 다채로운 변신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만 머물지 않는다. 산업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상황, 또 그들과의 연계·융합 수준에 따라 지역 재생의 촉매제나 앵커 포인트로 사용되며 다양한 재생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거의 그대로 두는 재활용, 출페라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활용된 산업유산의 경향은 관점에 따른 다양한 분류와 유형화가 가능하지만, 리모델링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거의 그대로 두는 방식에 가까운 재활용'이다. 산업유산에 내재된 '집단(시설)의 공간성'과 '작동 시스템'이 강하게 인지되는 유산이 주로 해당한다. 온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원료 획득·반입·저장·가공·제조의 공정, 반출·저장·유통으로 연계되는 프로세스의 특이성을 보존하여 산업박물관, 또는 에코 뮤지엄 개념을 반영한 문화예술 공원이나 교육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1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유산을 그냥 해체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시 기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노력, 즉 자원 미래화의 노력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운이 좋으면 산업유산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문화 향수를 누리고, 더 운이 좋으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기를 거친 현대 도시들은 산업유산을 '어떻게 다시 쓸까?'에 골몰한다. 그래서 산업유산에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다시 사용하자는 의미를 가진 '재활용'이란 용어다.

어제의 산업유산, 오늘의 새로운 공간이 되다

근대화 과정은 보통 '전통적인 것'을 '근대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두 요소는 얼마든지 공존하고 상호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것이 낡은 것을 바꿔치기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졌다 해서 낡은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충돌 없이 상호 적용하는 혼합 현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산업유산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진리에 꼭 들어맞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식되고 변색된 벽돌과 콘크리트의 흔적들

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였고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컨설턴트, 부산문화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02

©Francesco Carovillano/GNTB

01, 02
산업 풍경 전체를
보전 대상으로 삼은
출페라인



03

© Acroterion

독일 루르 지역 에센에 위치한 ‘출페라인 산업 콤플렉스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는 산업혁명기 독일을 대표하는 1920~30년대에 바우하우스 건축 기법으로 조성된 폐광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약 30년 동안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며 독일 경제를 이끌 어오다 1986년 문을 닫았다. 광산의 존폐 논란 속에서 발표된 빌헬름 부슈먼Wilhelm Buschmann의 논문(1920~30년대 합리주의 건축물의 미적·기술적 가치 연구)과 1985년 신문기자 11명의 방문이 출페라인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버려야 할 오염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산업유산으로 빠르게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주정부는 루르 석탄회사로부터 모든 땅과 시설을 구매하고 폐광 전체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며 재활용을 위한 실험을 시작하게 된다. 그즈음 루르 지역에서는 ‘IBA 건축박람회Emscher Park International Buildings Exhibition’가 개최되면서 출페라인이 중심 역할을 담당했고, 연이어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출페라인의 심장인 보일러실이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의 모체인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으로 재활용되면서, 출페라인은 디자인 기술 발전과 소통에 기반한 세계적인 복합문화단지로 기능하게 된다.

보전 중심의 재활용, 뉴욕 하이라인

두 번째는 ‘섬세한 변화를 도모하는 보전 중심의 재활용’이다. 산업유산의 외형, 공간 구성, 시설 요소 등의 특수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적절한 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능 부여가 가능한 유산들이 해당한다. 산업유산은 업종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데, 그 변신 과정에서 해당 유산과 관련된 기획자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 유산이 시민 활동이 집중되는 도심이나 특정 지역에 위치한다면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 유형의 대표 사례는 버려진 고가 철도를 도심 속 공중 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을 꼽을 수 있다. 뉴욕 맨해튼 서쪽 허드슨 강변의 미트패킹 지역에 육류 식품을 공급

하던 고가 철도는 1980년에 운행이 중단된 뒤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2킬로미터 남짓한 매우 짧은 폐고가 철교였던 이곳이 도심 생태 보행의 살아 있는 현장이자 뉴욕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것은 놀랍게도 단 두 명의 시민들 덕분이었다. 1999년, 그 두 명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6천여 명의 회원과 70여 명의 상근 근무자를 보유한 시민 재단으로 발전한 ‘하이라인의 친구들Friends of the High Line’이 하이라인 보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건설 비용의 50% 이상을 제공했고, 현재도 운영 관리비의 70%를 감당하는 ‘하이라인의 친구들’은 뉴욕을 사랑하고 오래된 뉴욕을 기억하려 했던 시민 정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보존된 하이라인’의 골격과 형상으로 발현되는 ‘보이지 않는 하이라인’의 강력한 끈틀거림은 쇠퇴하던 맨해튼의 뒷골목을 넘어 뉴욕의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혁신의 장소로 나아가고 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재활용, 엘프 필하모니

세 번째는 ‘혁신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창의적인 재활용’이다.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없고 열린 실내 구조를 가진 메가 스트럭처 mega-structure의 산업유산이 주로 해당한다. 기둥이 없는 실내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창의적인 리모델링 디자인이 적용된 증

축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다중을 위한 공간을 창출한다. 공간을 해체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임시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설당 공간을 리모델링한 파르마의 파가니니 음악당, 화력 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한 런던의 테이트 모던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으나³, 독일 함부르크의 ‘엘프 필하모니Elbphilharmonie’가 가장 핫한 사례로 꼽힌다. ‘엘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곳은 함부르크의 항구 재개발 지역인 하펜시티Hafen City 내 카카오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개관한 복합 공연 시설이다. 하적장 창고인 옛 건축물 위에 새로운 유리 건물을 얹어놓아 ‘뮤직 크리스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버금가는 공연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사실 엘피의 최고 강점은 리모델링한 산업유산 자체의 가치보다도, 엘피를 중심으로 재래 항구와 하펜시티, 그리고 도시를 연결하는 치밀한 네트워크 전략 속에서 전개되는 강력한



04



05

© Michael Zapf/Elbphilharmonie

03
뉴욕 도시의 버려진 고가 철도를 공중 정원으로 활용한 하이라인

04, 05
공간 혁신의 현장, 엘프 필하모니. 스타 건축가 헤어초크와 드외롱이 하적장 창고인 옛 건축물 위에 새로운 유리 건물을 설계했다

³ 1963년에 건설된 폐공장(철 와이어 생산)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장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의 F1963도 이와 유사한 유형에 속한다

지역 재생 효과다. 어떤 날은 함부르크의 강력한 랜드마크로, 어떤 날에는 시민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시민 화합의 장소로, 또 어떤 날에는 오래된 항구의 진한 향취를 느끼게 하는 진정한 산업 역사의 장소로 엘피는 변신한다.

진정성, 충실성 그리고 활력

위 사례들이 지닌 공통점, 혹은 성공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 가능하다.

첫째, '진정성을 갖춘 사람들의 야심있는 지원'이다. '하이라인의 친구들' 회원들의 가슴에는 '내가 하이라인을 살렸다 I Saved the High Line'라 적힌 배지가 달려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끔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이라 얘기한다. 물류 쇠퇴 지역과 폐철교라는 여건을 미래 도시의 비전과 연결한 창의적인 시선, 건강한 시민 정신이 하이라인 재탄생의 기초가 된 것이다. 이처럼 시민 참여가 기반이 된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출페라인과 같이 연방 주정부와 연구 기업이 힘을 합치는 경우도 매우 바람직하다. 출페라인의 운영과 관리는 출페라인 재단, 루르 박물관 재단, 출페라인 소사이어티 등이 공동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출페라인 폐광에서 일했던 광부들과 시민들이 1990년에 설립한 '출페라인 소사이어티

Zeche Zollverein Society'는 공장 설립 후의 사진, 문서, 도면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빙 작업,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 투어 등 매우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엘피가 있는 하펜시티의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 참여한 사회학자 마르쿠스 멘치 Marcus Menzi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매우 드문 선택을 했던 함부르크시는 그를 통해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산업유산의 재활용 과정에서 보다 복합적인 지역사회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산업유산 본연의 것에 대한 충실성'이다. 해당 유산이 지역민을 넘어 범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려면 본연의 강력한 산업사적 가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은 원산업에서 유래한 산업 기술이나 기계 시설,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물과 구조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뜻한다. 시급한 활용,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위한 철거나 공간 훼손은 결국 산업유산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해당 산업유산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코어 Industrial core'는 유산의 업종이나 기능, 입지 여건과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의의를 발견하고 지켜가야 한다. 하이라인은 허드슨강을 따라 움직이는 폐철도 전체의 입지와 그 형상이 핵심이었고, 출페라인은 코킹 플랜트, 크레인, 보일러실과 용광로, 저장 창고, 노동자 주

06 엘프 필하모니의 그랜드 홀. 개관 이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07 하이라인 대변신의 또 다른 계기를 제공한 휘트니 뮤지엄. 뉴욕 최고의 현대미술관인 이곳이 2015년, 하이라인에서 불과 1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변화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었다



© View from Gansevoort Street. Photographed by Ed Lederman, 2015. Courtesy of Whitney Museum

거지와 산업 운하, 심지어는 석탄을 수송하던 컨베이어 벨트까지 모든 것이 핵심이었다. 즉, 출페라인은 산업 풍경 전체를 보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엘피가 있는 하펜시티는 물류 항구의 시스템인 하역-저장-운송으로 이어지는 체계와 이를 작동시키는 창고, 선창, 물양장 등을 코어로 판단했고, 엘피는 가장 뚜렷한 그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활력 공급 시스템'이다. 행정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구축, 열정을 가진 (젊은) 관심자들의 지속 가능한 유입은 산업유산 재활용에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가장 보편화된 활력 공급원은 문화예술(인)이다. 자유 추구를 즐기는 문화예술인들이 꿈과 이상을 펼치기에 산업유산만 한 대상은 찾아볼 수 없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의 발생 전이라면 그들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출페라인과 엘피(하펜시티)의 활력원은 대학이다. 석탄 광산 지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메카로 육성된 데에는 출페라인 디자인 대학 Zollverein Design School이 중심에 있다. 유럽 유일의 도시·건축·환경 전문 대학인 하펜시티 대학 Hafencity University의 탄생도 그 맥을 같이한다. 두 대학 모두 해당 산업유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의 축을 담당할 젊은 역군들을 키워낸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하이라인의 지속 가능한 활력은 '하이라인의 친구들'과 휘트니 뮤지엄 Whitney Museum에서 시작된다. 2015년 4월, 뉴욕 최고의 현대 미술관인 휘트니 뮤지엄이 하이라인에서 불과 1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다. 뉴욕 최고급 예술 문화가 양지의 문화 지대를 버리고 하이라인 보존 운동에 감화되어 맨해튼의 유클리 포장·유통 지역으로 찾아온 이 사건은 하이라인 일대의 물류 창고들이 화랑으

로, 문화예술과 상업 기능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기폭제가 되었다. 하이라인의 재창조는 '단순하게, 야생 그대로, 조용히, 천천히'라는 도시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왜 그들은 '화끈하고 쉽게, 빠르게'를 택하지 않은 것일까. 폐철도를 걷어내고 크고 높은 빌딩을 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무미건조한 현대 도시의 한 단면이 탄생했을 것이다. 이 평범한 예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뉴욕시와 시민들은 치밀한 협치에 근거하여 '하이라인과 연결된 흔적들과 기억에 대한 존중'이라는, 스스로 선택한 도시 철학을 철저히 지켰다. 그 결과, 하이라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역재생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시민들의 먹거리를 실어 날랐던 폐철도에 대한 고마움에 답하려는 그 숭고한 뜻이, 선조들이 보고 느꼈던 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었던 그들의 온전한 마음이 하이라인의 창조를 이루어낸 것이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과 방향이 바로 새로운 역사인 것이다.

도시의 품격은 크고 강한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모여 있는 조화로움과 그들이 표출하는 정교함의 수준에 따라 판단되곤 한다. 여기서 작은 것이란 규모보다는 기능의 작음, 즉 현대 문명에 밀려 소외되고 쇠퇴한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 공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시대 가치의 변화를 뜻한다. 산업유산은 우리 삶과 가깝고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산업유산에 대한 우리의 의식 전환이 전제된다면 산업유산은 '친근한 생활유산'이자 '새로운 도시 창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산업유산의 재활용은 재생 시대의 화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ILLUSION :ELUSION

2019.7.19^{FRI} - 12.22^{SUN}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곽상원 송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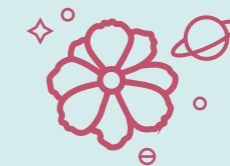
신용재 이현배

정상현 조이경

진민욱 황현숙

벤치에서...

첫사랑은 이루어진다



글 권현숙

서울출생.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작품으로 『인살라』 『루마니아의 연인』 『에어홀릭』 『나의 푸르른 사막』
『인간은 죽기 위해 도시로 온다』 『열린 문』 등이 있다. 한겨레신문 문학상,
이상문학상 우수상, 백상예술대상 시나리오상을 수상했다.

2019년 5월 어버이날 며칠 후

샤워기를 튼 듯 격하게 퍼붓던 하늘이 째하게 갠다.

미혜는 어제저녁 골라둔 정장 원피스를 치우고 다시 옷장 안을 수색한다.

격식을 차려야 할지, 캐주얼하게 입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상견례라면 상견례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당사자들은 빠지고 곁가지들만 모이는 좀 많이, 아주 많이 이상한 모임 자리다.

삼남매 중 유일한 딸인 미혜는 상견례인지 아닌지 모를 오늘 자리가 유독 버겁게 느껴졌다.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공은 언제나 미혜에게 넘어온다.

두 오빠의 입은 우격우격 먹기만 하는 입이고 두 올케의 입은 “결정에 따를게요” 녹음기 입이다.

며느리는 시택 일에 총대 메지 않아야 뒤탈 없다는 것을 역시 며느리인 미혜가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이번 일은 오빠네들이 앞장서 해결하는 게 좋을 텐데, 진짜 너무들 하네.

며칠 전 어버이날 식사 모임에는 아이들 빼고 어른들만 모였다.

그전에 엄마가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마라.” 미리 언질을 준 터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우리들은 준비해 간 선물들을 꺼내놓았다.

“그래, 고맙다.”

엄마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선물상자 - 실크 머플러, 손지갑, 홍삼, 화장품 세트 - 들을 한쪽으로 치웠다.

물론 풀어보지도 않았다.

‘매년 비슷한 선물이라 별로구나. 품목을 바꿔야겠네.’

미혜는 올케들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엄마가 불쑥 말했다.

“나, 결혼한다.”

처음엔 잘 알아듣지 못했다. 결혼한다는 말에 모두들 “누가?” “누가 결혼해요?” “나...영이? 큰이모네 나영이?”

저마다 지껄였다.

“내가 결혼한다구. 이·미·순 내가!”

순간 몰속처럼 조용해졌다. 중딩 딸이 ‘결혼할 친구’라며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보다 더 놀랐다.

머리가 멍하고 방금 넘긴 음식들이 역류하는 느낌에 떨미가났다.

엄마가 던진 폭탄에 어버이날 식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그날 저녁 모르는 여자분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 자식들끼리 만나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엄마의 결혼 상대자 즉 큰며느리였다.

그래, 일단 만나서 결론을 내자. 노친네들 주책에 휘둘리면 안 돼.

상견례는 무슨 상견례. 나이 칠십에 결혼이라니? 나 참, 남부끄러워서.

미혜는 마음을 정했다. 격식 차리는 자리가 아니다. 대미지 집에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강남의 유명한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양가 자식 일곱 명이 모였다.

사안인 사안인 만큼 늦는 사람도 없었고 빠진 사람도 없었다.

긴장이 역력한 얼굴들로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음식이 들어오고 원형 식탁이 몇 바퀴 돌았다.

아무도 선뜻 입을 떼지 않았다.

15년 전

평생을 군인으로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데 없이 떠돈 아빠가 심장마비로 순직하셨다.

우리는 관사로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올라왔다.

아빠가 살아 계실 때나 돌아가신 때나 서울 집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대로 돌아갔다.

대부분의 군인 가족들이 부대를 따라 이사 다니며 살지만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빠 뒷바라지는 군대에 맡기고 엄마는 자식들 공부에 전념하겠노라 선언한 것이다. 아빠도 찬성했다.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

엄마의 깨끗한 소신 덕분에 우리 삼남매는 전학 없이 평탄하게 초중고를 마쳤다.

늘 떨어져 살아와서 그런지 아빠의 부재를 딱히 실감하지도 못했다.

엄마는 신혼 초부터 이층집을 얻어 아래층에서 피아노 학원을 했다.

덕분에 삼남매 모두 대학 보내고 집안 대소사 다 챙기고 웬만한 가장보다 더 깨끗하게 가장 없는 가정을 지켜냈다.

그렇게 삼남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손주도 보고 하는 동안 자식들은 엄마가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이 그날인 듯 흘러가던 어느 날, 새삼 엄마의 나이를 깨닫게 하는 작은 사건이 있었다.

엄마 예순 살 생일날 저녁 식탁에서였다. 늘 말없이 먹기만 하던 큰오빠가 모처럼 입을 열었다.

“엄마 올해 환갑이지? 우리 엄마도 늙으셨네. 환갑 할머니야. 애들아, 우리 엄마 환갑 여행 보내드리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환갑 여행을 꺼낸 것도 모자라 ‘늙었다’느니 ‘할머니’라느니,

엄마로서는 그렇잖아도 우울한 예순 살 생일에 뼈 때리는 말을 들은 것이다.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평생을 피아노 선생님이로 살아가는 분이다.

언제라도 학부형이 찾아올 수 있고, 집이지만 직장이기도 하여 늘 곱게 차리고 있다.

긴장을 놓지 않아서인지 전혀 환갑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감각적인 포도즙빛으로 염색한 찰랑찰랑한 단발머리는 엄마를 갓 오십이 될까 딸까 한 교수님처럼 보이게 한다.

‘늙은 선생에게는 엄마들이 아이를 보내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혜는 알고 있었다. 버젓한 콩쿠르 수상 경력도 없고, in 서울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 없는 엄마로서는 기를 쓰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그런 엄마에게 잔인하게도 팩트 폭격을!

4년 전

독립적이고 젊고 고운 엄마는 그날 인생 중치는 소리를 들었을 거다.

시력 약한 한 학생의 학부모가 찾아와서 음악실 조명이 어둡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엄마는 그 길로 조명 가게로 달려가 신형 친구들을 구입했다.

미혜는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엄마와 실내용 사다리가 한데 엉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 꼴을 보자 미혜는 화가 치밀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엄마가 무슨 전구를 간다고 사다리를 타고 그래. 사람을 부르지. 돈 몇 푼 아끼다가 더 큰 돈 들어가게 생겼잖아.

내가 엄마 때문에 못살아!”

병원에서 손에 잔뜩 깎스하고 나오는 엄마를 보자 미혜는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골다공증 약까지 먹으면서 엄마는 그렇게 생각이 없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손이 생명인 사람이 미련하게 이게 뭐야. 이제 어떡할 거야. 학생들에게 손 다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거야?

깎스 풀 때까지 밥은 어떻게 하고 목욕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나마 손인 게 다행이지, 허리라도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어? 똥오줌 누가 받아낼 거냐구?”

미혜는 할 말, 못 할 말 마구 퍼부어대며 엄마를 야단쳤다.

말끝에 버릇처럼 딸러 나왔다. “내가 엄마 때문에 못살아!”

그때였다. 미혜의 왼뺨이 번쩍 한 것은. 난생처음 뺨을 맞았다.

미혜는 너무 분하고 너무 서러워서 엄마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 혼자 택시에 탔다. 등 뒤에서 엄마가 소리 질렀다.

“내가 굶어 죽어도 너한테 밥 달라고 안 해. 똥으로 칠갑을 해도 너한테 치우라고 안 할 거야.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

모녀는 각자 택시를 잡아타고 각각 집으로 갔다.

엄마는 재활 치료에 전념했다. 전념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그 결과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피아노를 칠 정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피아노 학원을 단았다. 아마 그때부터일 것이다.

엄마가 변했다. 불면증 약, 우울증 약, 변비약, 두통약, 수상한 영양제들이 집 안 구석구석 넘쳐났다.

하지만 문제는 약 따위가 아니었다.

“너 머리가 그게 뭐냐. 오렌지색이 네 나이에 어울려? 네 나이에 찢어진 청바지가 가당키나 하니?

옷 꼬라지 하고는. 정신 차려. 너도 마흔이 넘었어.”

말끝마다 나이를 들먹이며 딸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다. 엄마와 싸우고 울며 집으로 가는 날이 늘어났다.

미혜는 엄마가 다니는 정신신경과에 외래 진료를 신청했다.

어머니가 따님의 나이를 들먹이는 건 실은 자신의 나이를 혐오하기 때문이에요.

유난히 젊음에 집착하시는 편이고, 피아노 학원이 유일한 자부심이었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됐고….

본인이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고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따님은 아직 젊고 재취업에도 성공했고….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질투하고 심통 부리시는 거예요. 딸이라기보다는 젊고 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미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독립적이고 곱고 깔끔한 성격의 엄마가 딸인 자신을 질투하고 심통을 부리다니.

의사가 덧붙였다.

아직 초기 우울증이니까 약과 가족들의 협조로 치료 가능합니다.

자신감 회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시구요.

그런 엄마가 또 변했다. 우울증 약도 끊고 불면증 약 없이도 잘 잔다고 한다.

재잘재잘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아졌다. 중딩 손녀딸과 수준이 맞는다고 할까.

둘이 마주 앉아서 손톱에 매니큐어로 꽃그림 그리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심란하다.

그렇다고 치매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이 칠십에 소녀 같아진 엄마가 미혜는 낯설다.

평생 이렇게 밝고 상냥한 엄마를 본 적이 없다. 아무튼 정상이 아니다.

54년 전

열여섯 미순과 준혁이 코스모스 핀 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둘은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다. 묵묵히 걷던 준혁이 물었다.

“코스모스 꽃말이 뭔지 알아?”

“뭐야?” 미순이 되물었다.

“순정.”

“순정? 아, 순정!”

미순은 고백이라도 받은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코스모스는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실은 철학 용어야.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질서’ ‘우주’ 그런 뜻이지.

가냘픈 꽃에 너무 엄청난 이름을 붙였다, 그치?”

미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는 모르는 것도 없고 못 하는 것도 없다. 기타 잘 치지, 노래 잘하지, 운동 잘하지… 교회 여자아이들이 다

좋아한다. 게다가 부모님 두 분 모두 대학 교수님이라고 한다. 시장에서 건어물전 하는 아버지와는,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다르다. 엄마 아버지 몸에서는 늘 쿼퀴한 건어물 냄새가 난다.

미순은 자기 몸에서도 건어물 냄새가 날까 봐 한 발짝 물러섰다. 그때 준혁이 코스모스 한 송이를 미순에게 건넸다.

“우리 이름 만들까? 우리 둘이서만 부르는 비밀 이름.” 둘이서만 부르는 비밀 이름이라니! 가슴이 쿵쿵 뛰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코스’고, 네 이름은 ‘모스’야. 코스와 모스가 합쳐져야만 완전한 우주가 되는 거야. 우리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부르는 거다? 비밀 이름이잖아.”
 그때일까. 준혁이 미순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 뺨을 어루만졌던가?
 아니다, 입술이었다. 준혁의 뜨거운 입술이 미순의 떨리는 입술에 닿았다.
 첫 입맞춤이었다. 첫 키스였다. 첫사랑이었다.

코스는 기타 치고, 모스는 성가대 반주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우리 어머니도 성가대 반주자였대. 그래서 아버지가 반하셨대.
 모스 네가 성가대 반주자 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열여섯 준혁은 그렇게 미순에게 청혼했다. 미순은 그날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다.
 아버지가준 돈에서는 짠 건어물 냄새가 났다.

2019년 5월, 강남 차이니즈 레스토랑

회전 테이블에는 이제 빈 접시들만 남았다.
 올해 일흔이신 우리 엄마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삼남매와 은퇴하신 김준혁 교수댁 자녀분들 사남매가 마주한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다. 할 말은 많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떼지 않는다. 마침 디저트 과일이 들어왔다.
 약간의 소음을 기회로 큰올케 언니가 시누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그렇잖아도 눈치만 보고 있던 참이다. 미혜가 입을 열었다.
 “다들 아실 테니까 터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혜는 엄마와 김준혁 교수가 동거 아닌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말했다.
 나이 일흔에 동거라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었다. 김 교수댁 큰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한 모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는 거야 자연스런 일이지만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냅시다.”

결론을 내잔다. 두 분이 결혼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진다, 는 뜻이다.
 엄마도 엄마 명의의 집 있고 은행에 현찰도 있지만 김 교수댁과는 비교가 안 된다. 레벨이, 아니, 차원이 다르다.
 그쪽에서 눈에 불을 켜고 따지고 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미혜네는 또 미혜네대로 썸범이 복잡하다.
 당연히 물려받을 줄 알았던 건물과 현찰 때문에 신경들이 곤두서 있다.
 엄마 재산이 모두 저쪽으로 넘어갈까 봐 안절부절이다. 양가 모두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한 자리다.
 시간 끝 것도 없었다. 결혼 반대. 동거 반대. 여자친구 남자친구로만 인정.
 섭섭하실 테니 최고급 크루즈 여행이나 보내드리는 걸로 결론을 냈다. 황망히 자리에서들 일어났다.

701호 702호

마침 비어 있는 두 집이 나란히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호젓하게 두 집만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새로 들고 각자 취향에 맞게 집을 꾸미면서 준혁 씨도 미순 씨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만약을 대비하여 두 집끼리만 통하는 비상벨도 달았다.

딩동: 차 마시러 와요.
 덩동덩동: 식사하러 오시오.
 덩~동 덩~동: 산책 갑시다.
 덩~~~~~: 나 아파요!

자식들 눈에는 노친네들 수상한 동거로 보이겠지만 그런들 어떠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여자를, 남자를 다시 만났다.
 인생의 임무를 훌륭히 마치고 얼마가 될지 모를 시간 동안 그리운 사람과 마주 보고 사는 것이
 무에 부끄러운 일이란 말인가. 두 사람은 이 시간을 신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혹여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만났더라도 서로를 받아들였으리라. 하지만 얼마나 다행인가.
 코스도 모스도 건강하게 만났다. 이제 코스모스 완전체가 되었다.
 701호 702호 마주 보고 살면서 자잘한 사건들이 없지는 않았다.

덩~~~~~.
 준혁 씨가 급하게 2호집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다. 미순 씨가 핸드폰을 들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히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방금 아들이 다녀갔는데 남의 차를 박았대요.
 아들이 어제 먹은 술이 덜 깨어서 한숨 자고 가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당장 합의 보지 않으면 음주 운전으로 고발하겠대, 상대방이.
 “아들, 다치지지는 않았고?”
 “상대방이 크게 아주 많이 다쳤대.”
 “그래서 어떻게 하리는 거야?”
 “사천만 원 주고 합의하려나 봐. 나 은행에 좀 데려다줘요.”
 “잠깐, 잠깐, 아들이 나간 지 얼마나 됐지?”
 “한 이삼십 분? 아니, 몰라.”
 “근데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해? 와이프는?”

“개들 돈 없어. 얼마 전에 가게 들어먹었거든.”

“내가아들한테 전화좀 해볼게.”

그경황에도준혁씨는미순씨를소파에앉히고따뜻한물을먹인후에미순씨아들에게전화를걸었다.

그리고또어딘가로전화를걸더니사고현장으로오라고지시를내린다.

미순씨는침착하게일을처리하는준혁씨의목소리를들으면서오랜만에든든한기분을느꼈다.

결국그사건은고의교통사고사건으로판명났다.

“어떻게알았어요?”미순씨가물었다.

“현장합의를중용하면일단사기를의심해야지.

아들이술기운이남아있다고지레겁을먹어서판단능력이흐려진거야.”

미혜와김교수댁큰머느리가각각701호,702호벨을눌렀다.

선물보따리에는세계일주크루즈여행권도들어있었다.기척이없다.701호도,702호도.

그때핸드폰으로문자가왔다.미혜에게도,큰머느리에게도동시에.

미혜야.엄마여행떠났다.

난생처음배낭여행이야.

중국만리장성을시작으로

국제열차타고몽골초원-

러시아시베리아대륙횡단-

터키소피아대성당-

(언약식)

그리스크레타섬-

이태리카타콤베-

모나코그랑프리

(F1자동차경기를

꼭한번보고싶었다.

그레이스켈리가물힌

대성당도가볼거야)

죽기전에꼭가보고

싶었던여행지들이야.

김교수가함께있으니

엄마걱정은하지마라

자주연락할게.

에미야.나여행떠났다.

난생처음배낭여행이다.

중국만리장성을시작으로

국제열차타고몽골초원-

러시아시베리아대륙횡단-

터키소피아대성당-

(언약식)

그리스크레타섬-

이태리카타콤베-

모나코그랑카지노

(나도도박의맛에

빠져보고싶구나.

항상궁금했거든)

아직다리성할때

다니고싶은곳다녀보련다.

혼자가아니니

내걱정은하지마라.

자주연락하마.

66 Interview

김진환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

70 Sketch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중국 현지 답사기

72 Zoom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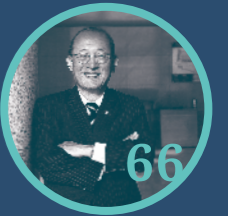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

76 Calendar

캘린더

78 SNART News

성남문화재단 소식



INSIDIE SEONG- NAM



김진환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과 상생을 이어가고 있는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의 제 6대 후원회장으로 김진환 후원회장(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이 선출되었다. 국내 법률 문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법조인이자 존경받는 오피니언 리더이기 이전에,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진정한 예술 애호가'라는 점에서 김진환 회장을 바라보는 기대는 남다르다. 인간미 넘치는 통섭^{通涉}의 리더십으로 어느 자리에 서나 따뜻한 소통의 힘을 보여준 김진환 회장이 후원회와 함께 이뤄갈 문화예술의 꿈, 그 비전을 들어보았다.

늦은 밤, 음악을 벗 삼아 조용히 시집을 펴다. 김진환 회장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긴장과 격무의 연속, 자칫 차갑고 건조해지기 쉬운 법조인의 일상 속에서, 문학과 예술은 그에게 삶의 균형을 이워주는 '인생의 동반자'다.

“30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지금도 로펌 대표라는 딱딱한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 가슴이 얼음장이 되거나 앓을까 하는 걱정에 틈틈이 시집을 펼치고 음악을 듣습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위해 일과 뒤에는 시 한 편, 음악 한 곡 감상 권하지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와 예술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화의 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환 후원회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사법연수원 4기로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총정 대표변호사와 대한공증인협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포렌식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등 실무와 학계를 잇는 폭넓은 연구와 활동으로 법률 문화 발전에 헌신해온 것은 물론, 역사 연구 모임 '자운회', 시^詩 전문 계간지 <시와 시학> 운영위원장, 한국바그너협회 이사 활동 역시 그의 소통과 통섭의 면모를 볼 수 있는 흔적들이다.

“저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즉 휴머니즘에 대한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계관시인 오든^{Auden}의 시구처럼 ‘법은 사랑처럼 law like love’ 운영되어야 하지요. 특히 법학은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주변 학문인 인문학, 즉 문

학·역사·철학의 토대 위에서 제대로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법학도 인간을 다루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였을까, 검사 시절 떠난 독일 유학에서 불안정한 인간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정신 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김진환 회장은 그 주제로 결국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법과 인간, 법학과 의학의 접점을 찾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이는 부친에게서 받은 영향도 적지 않다. 일제 강점기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평생 의사가 없는 농촌에서 한결같은 인술을 펼친 부친은 지역에서 큰 존경을 받은 슈바이처와 같은 존재였다. 자연스레 의대 진학을 생각했던 김진환 회장은 “의대는 네 형이 진학했으니 너는 법을 공부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이 어떠냐”는 아버지의 조언에 법학으로 진로를 결정한다. 법도 의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다루는 것이니, 법을 통해 사회 병리를 치료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김진환 회장은 학내 '낙산문학회' 회장과 학보사 편집위원은 물론, 대학신문 신춘문예에서 문과생들을 제치고 당선되었을 정도로 문학에 대한 재능과 애정이 남달랐다. 법조인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지금도 틈틈이 습작을 이어갈 정도로 문학, 특히 시에 대한 꿈은 여전하다. 매월당 김시습을 선조로 둔 가문의 유전인 것일까, 김진환 회장의 딸 역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뒤 신춘문예를 거쳐 시인 겸 평론가로 활약하며 아버지의 못다 한 꿈을 이뤄가고 있다.

“당시 법학도들의 우상은 법학을 전공한 시성 괴테^{J.W. Goethe}였습니다. 그가 쓴 『시와 진실』이 인생의 교본이었고, 『파우스트』가 높은 지향점이었지요. 고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쉽게 붓을 놓았지만, 꿈이 길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쩌면 언젠가 늙은이의 지혜가 담긴 시집 한 권 낼 수 있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웃음).”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소문난 음악 애호가인 김진환 회장은 틈틈이 공연장을 찾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해외 학회 등 출장길에도 바쁜 일정 중 짬을 내어 공연을 감상하는 것이 작은 기쁨이다.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임 시절 오스트리아 빈 출장이 종종 있었어요. 일정이 끝난 뒤 빈 슈타츠오페에서 오페라와 발레를 감상하는 게 낙이었지요. 공증협회장 시절 국제회의차 남미에 갔을 때 콜론 극장^{Teatro Colón}을 찾았던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네요. 그곳에서 들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의 선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김진환 회장은 한국바그너협회 이사로 활동 중인 바그너네리안이기도 하다. 바 이리이트 축제 극장 역시 직접 찾아 요나스 카우프만의 <로엔그린>, 연광철이 출연한 <파르지팔> 등을 감상하며 바그너 음악극의 스케일에 다시금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조만간 바그너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탄호이저> 등을 초연한 독일 드레스덴 쟬페오퍼^{Semperoper}를 찾아 오페라를 감상할 계획이다.

“베토벤을 거대한 산맥으로 경외했던 바그너는 새로운 화성과 작곡법으로 베토벤을 넘는 혁신을 꿈꿨고, 근대 음악의 단초를 열었던 작곡가였죠. 길고 장중한 스케일의 바그너 오페라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속에는 바그너만의 강렬한 색채와 매력이 가득합니다. ‘인간 바그너’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더라도, ‘작곡가 바그너’가 대본을 직접 쓴 문학가이자 음악극을 만든 총체적 예술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의 음악 취향이 바그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바로크부터 고전과 낭만, 그리고 현대음악까지 다채롭다. 특히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비롯한 독일 리트들은 언젠가 직접 노래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작품들이다. 최근에는 말러와 브루크너,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 작품을 즐겨 듣는다는 김진환 회장은 바이올린도 꾸준히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필경 바흐로 할 것이지만, 자기들끼리 모여 놀 때에는 단연코 모차르트를 연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꺼워하며 살며시 귀 기울일 것’이라는 말을 남겼지요. 장르와 색깔이 다른 아름다운 음악이 너무 많으니, 저 역시 음악을 듣다 보면 항상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꾸는 꿈

지난 3월,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의 제 6대 후원회장으로 선출된 김진환 후원회장은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하던 2005년 10월, 후원회 창립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문명과 예술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창작자 뒤의 예술 후원자들, 즉 메세나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은 거친 사막에서 선인장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이지요. ‘나눔과 베품’ ‘소통과 공감’은 자신의 행복은 물론 타인에게도 화평^{和平}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남아트센터는 복잡한 서울의 외곽에서 여유를 가지고 진지하게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이미 수많은 거장들이 이곳을 찾았고, 뛰어난 자체제작 작품들로도 경

쟁력을 입증한 바 있지요. 시설과 규모 면에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활용되는 글로벌 복합문화예술공간, 시민과 관객, 예술가 모두가 사랑하는 기쁨 가득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사회의 존경받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문화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진정한 예술 애호가’라는 점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김진환 회장 역시 후원회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상생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 중이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성남아트센터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후원회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후원회의 밤> 행사 역시 내실화하고, 몇 년간 뜸했던 해외 문화예술 탐방 역시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도 중요한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회장은 노먼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의 저서 『적극적 사고방식^{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을 언급하며 후원회와 함께할 비전을 마무리했다.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라는 저자의 긍정적 마인드는 후원회의 미래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꿈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집니다. 한 사람이 꾸면 그냥 꿈으로만 머무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지요. 지금 제겐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는 신념 속에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성남아트센터를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 꿈, 이제 우리가 그 꿈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마티네콘서트

차이콥스키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6월 20일

안단테 칸타빌레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김볼소리

차이콥스키 : 안단테 칸타빌레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47
라벨 : 쿠프랭의 무덤, M.68

7월 18일

한 여름날의 환상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 홍석원
소프라노 서선영

멘델스존 : <한 여름 밤의 꿈> 중 결혼행진곡
차이콥스키 :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1막 2장 중 타티아나 편지 장면
슈트라우스 : <4개의 마지막 노래> 중 III. 잠들 무렵
차이콥스키 : 교향곡 1번 G단조 Op.13, '겨울날의 환상'

2019년 3월~12월 (총 10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중국 현지 답사기

흔적에 치성을

야반삼경 잠이 드는가 하는 순간에 사분사분 흰 물체가 어른거린다. 할머니께서 잠든 아이들이 깰까, 조용히 몸을 움직이고 계셨다. 두 손에는 하얀 사발 하나를 고이 드셨는데, 마당으로 나가자 큰 달이 그릇에 일렁이며 반짝이는 것이, 그릇에 담겼던 것은 맑은 물이 분명하다. 이것이 무슨 광경인지 슬그머니 궁금해진 어린 나는 할머니를 몰래 따라나섰다. 마당 장독대에서 가장 너른 향아리 뚜껑 찾아가 그곳에 흰 사발을 올리신 할머니는 호흡을 고르시고 이어 거둬거둬 비손이를 하신다. 말이 없는 가운데, 곁에서 지켜보는 나의 가슴 틈을 벌리고 점차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어왔다. 훗날이 되어야야 예부터 이것을 치성(致誠)이라 일컫는 것을 알았다. 나라와 사회, 집안의 무고와 가족들의 안녕을 빌고 기원하는 정성의 행위. 이 치성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하고 있다, 개인이 홀로 뜰 떨어져 세상 위에 혼자 서 있는 듯 외로움과 씨름하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는 먼 근원과 주변을 딛고, 그것으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어짐'으로 붙은 한 덩어리이자 서로 어떠한 관계든 맺고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드디어 광복 100년이 되는 해가 돌아왔다. 성남시는 이 '치성'이 가서 달아야 할 곳을 찾아 나섰다. 그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었고, 이 독립운동가들의 혼백과 정신(精神)을 귀히 모셔와 대중에게 가깝게 모실 만화 작가 33인과 이를 웹툰으로 만들어 널리 알리는 일을 추진하는 실무진이 꾸려졌다. 우선 이분들의 격렬했던 전장(戰場)과 소리 없이 묻히신 순국지(殉國地), 남아 있는 초라한 비석이라도 찾아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작품에 녹여내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먼저 대표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중국의 동북,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답사 길과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한 관내 지역을 찾아 떠나가 대장정의 길을 돌아왔다. 그 길이 삼만 리(약 10,000킬로미터)가 되었다.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폭설이 내린 이도백하(二道百河)와 추위가 살을 파고드는 광활한 만주 벌판, 버스로 열 시간, 네 시간, 여섯 시간씩 넘게 달려가 마주 대한 방천과 투먼, 흑룡강성, 목단강, 해림, 계서, 밀산, 하얼빈역의 다 허물어져가는 비석들과 간신히 복원한 옛 터들, 그리고 상하이와 난징, 항저우와 충칭, 광저우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미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이었다. 이동하는 내내 감출 수 없는 감정들이 반복쳐 올라 때로는 분개하고, 때로는 속울음을 울며 아무도 찾지 않았던 초라한 흔적들을 위로하며 마음을 두고 떠나왔다. 거기에 역사와 인문, 웹툰 전문 자문위원이신 정현기, 김명섭, 정철훈, 윤종준, 홍영기, 최정규, 이재식 선생의 상세한 설명과 해설에 마치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듯, 당시의 감정으로 도시와 도시를, 시간과 시간을 경중 뛰어넘으며 다니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마지막 답사지, 광저우(廣州)의 기의열사능원(廣州起義烈士陵園)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宣言)'이라고 쓰인 정자 앞에 당도한다. 큰 비석의 앞 얼굴에는 광저우봉기의 부사령관인 예찌엔잉(葉劍英)이 중국정부 수립기념 국경일인 1964년 10월 1일에 직접 쓴 글이 새겨져 있었다. '조선과 중국 양국 인민이 전투로 맺은 우의는 길이길이 빛나리라'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1927년 12월 11일 광주 기의 봉기에 참여한 조선 청년들은 150여 명으로, 최후의 사하 전투에서 진지를 사수하다가 대부분 희생되었다. 이 피로 맺어진 우의는 만고에 빛날 것이다'라는 비문이 적혀 있었다. 준비해 간 술과 현화를 하시던 김명섭 자문위원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고국의 술이 아닌 중국의 술로 마음을 울리게 되어 심히 부끄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목이 메셨다. 답사팀 모두가 그 고스란한 마음을 느끼고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들이 바친 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생을 압축하여 미련 없이 던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길고 안락한 생을 버리고 이리 멀고 험난한 길을 걸었을까? 그 최후는 왜 그렇게 비통하고 장렬했으며, 그리고 또 그렇게 산화하여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곳에서 풍화되어 사그라지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가지를 치지만 늘 대답은 하나로 들려왔다. "너희, 남겨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야 했기에." 만화(漫畵)라는 단어를 찾아 먼 중국의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찾아보니, 이 만(漫)

글 정한별 시인

중국 북경대학교 중국문학 학사를 거쳐 계간 <문학나무>에서 2012년 봄호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출판,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저우에 위치한 기의열사능원을 찾는 웹툰 프로젝트 답사팀

자는 물 비칠 만자이고, 의미는 가로막힌 독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모습이나, 수면에 비치는 햇빛으로 '물결의 반짝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결국 만화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생명의 빛을 담은 그림이리라. 이 대장정의 길 위에서 우리가 마주한, 이제는 찾는 이도 많지 않은 초라한 흔적들에 만화가들이 다녀갔다. 만화가들이 다녀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단 한 장의 그림으로도 능히 천 마디 말보다 많은 뜻을 전하는 이들이 아닌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곳곳을 담아내시던 허영만 선생, 꼼꼼하게 사진을 찍으며 차곡차곡 이저러진 흔적들을 각인하시던 김진 선생, 후배들 다독거리며 그 먼 여정을 곳곳하게 지켜주시신 김광성, 차성진 선생, 커다란 키로 유적지를 지날 때마다 때론 분노하고 때론 슬퍼하던 오자유 작가, 끝내 울컥 눈물을 보이신 김금숙, 류량, 최인선 작가, 조용히 뒤에서 독려하고 자신의 앓을 나누던 전세훈, 박건웅 작가, 아이처럼 맑은 기운으로 위아래로 사랑받는 이루다, 이별님, 양광민 작가, 조용히 따르며 하늘

을 찡긋 바라보던 이민진, 이화신 작가, 골똘하게 써 내려간 수첩을 든 김성희, 유대수 작가, 묵묵한 조명원, 김재연 작가, 숙제라며 앉는 곳마다 스케치를 하던 천명기, 유대수 작가, 유쾌한 모습으로 동료들을 살피던 박명운, 이상훈, 정기영 작가, 재치와 깊이가 남다른 이정현, 송동근, 김연승 작가, 엉뚱하고 순박한 정용연 작가, 우박만 내리면 생각날 것 같은 김현민 작가, 말없는 그림자처럼 작가들을 이끌고 씬 없는 열정으로 복돋워주던 이도헌, 정민혁, 김동영, 김진영, 윤일영, 염기남 실무단, 그리고 오롯한 시선으로 촬영에 임했던 조은성, 김준호 영상팀. 이들 사람 된 자들이 눈으로 가슴에 담은, 비록 초라해진 흔적들은 작가들의 끊임없이 이어진 치성으로 뼈와 살이 붙어 되살아나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존재할 것이다. 흔적이라는 말, 상처를 말하고, 치성이라는 말,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마음 사이이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디디고 선 이곳, 단 한 평도 빠짐없이 저 피와 상처들에서 받은 토대이다. 흔적에 치성을.



김달 <낮과 산성동의 밤 Night of Sanseong-dong and Day>, 2019, pigment print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

성남 원도심을 만들어온 개인들을 찾아서

태평동에는 삶을 만들고 동네를 구성하는 무수한 개인이 존재한다. 그들의 흔적을 장소에서 발견하고 현재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는 과연 가능할까. 태평동 빈집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은 예술의 개입으로 지역사회와 주민 사이에 접점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동시에 성남 원도심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슈인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이 지니는 위상에 관해 사유해보고자 한다.

글 이경미

현대미술이론을 전공하고 서울 소재 사립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독립기획자로 전향 후 2017년부터 공공예술 프로젝트 '만아츠 만액츠10000 ARTS 10000 ACTS' 및 도시와 관계에 관한 개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높은 지대에 촘촘히 들어앉은 20평의 다세대 주택들, 좁은 골목에 교묘하게 주차된 차량들, 골목 점포들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평상과 의자를 내놓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노인들, 대문 앞에 조르르 놓인 화분들과 유난히도 많이 보이는 외벽에 걸린 거울들, 슈퍼 대신 공판장이라 적힌 간판들, 네명이 먹어도 충분한 15,000원짜리 동태찌개. 성남 원도심에 위치한 수정구 태평동에서 마주친 생생한 삶의 풍경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옛 동네 모습의 현재 진행형이다. 1960년대 후반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 개발 계획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곳은 누적된 시간들과 개인의 흔적들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잘 간직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팍팍한 삶을 감내해낸 무수한 개인들이 있을 터이고, 하루를 살아낸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널려 있다. 조선 시대 '탄동'이라 불리다 1973년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근심 걱정 없는 태평한 지역을 만들자"는 뜻의 '태평동'으로 개칭되었다는 사실은 과거와 오늘을 잇는 이 지역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삶과 예술이 만나는 빈집

이제 태평동의 시민로와 태평로 일대에 늘어선 빈집에 들어가보자. 대부분 2층짜리 주택이거나, 1층을 공판장이나 의상실, 미용실, 치킨집 등 가게로 사용하던 곳이다. 집을 떠난 시점에서 멈춰버린 달력과 아이들의 그림이 벽면에 걸려 있고, 화려한 꽃 벽지와 타일로 정성스럽게 꾸민 방과 거실, 옷풍을 막기 위해 은색 단열재로 벽을 덧대고 유난히 거울을 많이 걸어 놓은 집 등 모두가 제각각의 얼굴을 하고 있다. 20평, 같은 규격 안에서의 삶이지만 이 집들을 스쳐간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삶을 꿈꾸고 살아갔을 터이다. 그들의 삶을 평면적으로 만드는 거시적인 관점, 거대 담론에 가려졌던 개인을 다시 주목하고, 동네의 삶에 소소하게 스며들어 그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다면?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은 성남 원도심에서 여전히 삶을 만들고 동네를 구성하는 무수한 개인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방식을 선보이고자 한다.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의 입주 작가들과 외부에서 초청된 작가들 및 주민이 협력하고, 성남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간을 지원한 본 프로젝트는, 장소 특장적 설치 작업과 퍼포먼스, 커뮤니티 아트 기반의 프로젝트와 골목 영화제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업들로 구성되어 올해 6월, 10일간에 걸쳐 태평동 일대의 골목과 빈집을 채운다.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방증하듯, 도시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새롭게 태어난다. 따라서 언젠가는 사라질 현재의 모

습을 기록하고 아카이빙하는 것은 예술의 중요한 행위이자 속성이다. 김달 작가는 신흥공공예술창작소에 입주한 2년간 신흥동과 태평동을 포함한 수정구 일대를 카메라로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구름지 위, 용적률 기준에도 못 미치는 뽕뽕한 간격의 20평 집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깃줄 아래 위치한 풍경은 60년대 말~70년대 초, 이 지역이 형성되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은 이 지역이 생겨난 배경에 자리잡은 이주^{移住}와 정주^{定住}의 이슈와 연결되기에 더욱더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창훈 작가의 <무의미의 의미>는 도배라는 행위에 주목한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면 사람들은 도배를 하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오랜 시간 고단한 삶을 함께할 집에 대한 감사와 애도



박혜수 <Day> I'm sorry but I didn't Know
2019, 사운드, 체인, 혼합매체, 가변크기(Sound: Hidden Song by 배민경)



01



02

를 표한다. 작가는 이제 곧 철거될 예정인 빈집에서 이러한 제의의 과정을 진행하고 기록함으로써,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너머 거주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보다 개인에 주목한 작품으로는 박혜수 작가의 사운드 및 설치작업 <I'm sorry but I didn't know>와 배민경 작가의 퍼포먼스로 구성된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에 관한 작품으로, 빈집에 울리는 나지막한 노랫소리와 함께 전시 기간 중 밤 시간에 한 차례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이 작업은 거대 담론과 역사에서 꺾여나간 나머지를,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의 많은 주체들과 그들의 지위진 목소리들을 연상시킨다.

한편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각각의 주민들이 지닌 개인성의 단편을 모아 지역(의 일부)을 재구성해보려는 작업들도 있다. 서해영 작가의 <빈집살이>는 태평동 빈집을 작업실 삼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동네에서 체류하면서 '티 나지 않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미시적 관점의 개입과 관계 맺기를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는 작업이다.

<태평프로젝트>는 지역 내에 거주 및 활동 중인 가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가천프로젝트 팀과 이원호 작가의 협업으로 기획되었다. 그들은 태평 2동과 4동의 좁은 골목에 놓인 거울, 시계, 화분, 의자 등 사유와 공유의 경계에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에 주목하고,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수집한 주민들의 물건들로 정원을 조성하는 실내 설치작품 <태평화원>을 제작한다. 또한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을 그린 '집 초상화' 아카이빙 작업은 집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과 감정의 조각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주거에 관해 개인성에 기반한 공동의 정서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옥상에 설치될 '태평등대'는 조명의 깜박임으로 언어를 구현하는 모스 부호에서 착안한 작업으로, 주민들에게 친숙한 장소인 옥상과 어두운 골목을 지키는 조명, 소통의 가능·불가능성을 실험한다.

사실 옥상은 이 지역에서 매우 특수한 장소성을 지닌다. 산을 깎아 만든 도시인 만큼 층층이 보이는 네모난 옥상들의 모습과 그 위에 다양한 삶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태평공공예술창작소의 성유진 작가는 주민들의 추억과 성남의 시간이 담긴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 필름으로 복원하는 프

로젝트를 실행한다. 1970년대 성남이 너른 밭이자 황무지였던 시절을 지나 90년대 골목에서 딱지치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동네와 삶이 만들어진 개인의 역사가 한눈에 보인다. 작가는 이렇게 주민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화와 이미지들을 통해 지역 삶의 단편들을 아카이빙한다. 허수빈 작가는 <우리 옥상>이라는 동호회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다 실질적으로 옥상이라는 장소성을 탐구한다. 식물 재배, 옥상다리 연결하기 등 옥상 속 문화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로, 태평 빈집 프로젝트에서는 1회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시각 예술 기반 프로젝트이지만, 기획의 시작점에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문화예술의 창작자이자 향유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랐다.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영화제 프로그램은 실제로 약 20년 전 실행된 주민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8·15 골목영화제>에서 영감을 얻어 기획된 것이다. 애니메이션 상영과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골목의 언덕과 옥상에서 영화와 더불어 동네 풍경을 '새로이' 감상하는 의도를 지닌다. 한편 지역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협업으로 진행 예정인 음식나눔은 수면 위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지역사회의 주체들과 접점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다.

도시의 유휴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는 결코 새로운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폐허의 공간이 지닌 낯것의 아우라와 장소 특정한 설치 방식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동시대 예술의 전시 방식 중 하나이다.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도시 재생이 주목받고 예술이 '공공성을 강요받는' 일련의 흐름 안에서는 더욱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초현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폐허의 예술로 이해되거나 '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읽히는 것을 지양한다. 오히려 서울 도시사를 간직한 성남 태평동 지역의 빈집과 골목 안에 실제로 몸담았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 과거를 딛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소소하게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 지역에 발붙이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과 오롯이 관계 맺기란 애초에 불가능하고 미완에 가까운 목표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작가 나름의 방식으로 동네가 지닌 기억의 장소들을 기록하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일 게다. 미약하고 소소하며 비생산적인 이러한 예술 행위들이 모여 태평동을 만들고 있는 개인의 삶 안으로 한 발자국 내딛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태평 빈집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01, 02
성유진 <기억 수집> 2019, 수집된 사진들.
70년 성남동 배밭, 90년 성남 골목의 모습

03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태평화원>
2019, 태평동 골목의 오브제들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

기간 6월 14일(금)~23일(일) 12~17시
장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197번지 일대

참여작가

- 김달, 김달·박승에 프로젝트팀, 박양빈, 박혜수×배민경(신흥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작가)
- 박성진, 성유진, 허수빈(태평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작가)
- 서해영, 송주원(일일댄스 프로젝트), 아라크네(김진디, 박성진, 이계원),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이창훈

프로그램

- 박혜수×배민경 퍼포먼스: 6월 14일(금) 19시, 태평4동 197번지
- 골목 누워 영화제: 6월 15일(토)~16일(일) 18시, 태평4동 197번지 옥상 및 골목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오픈스튜디오: 6월 22(토)~23일(일) 12~17시, 신흥공공예술창작소
- 공공예술창작소 라운드테이블: 6월 22일(토) 14시, 태평4동 1709번지
- 허수빈 우리 옥상 워크숍: 6월 23일(일) 14시, 태평4동 1709번지
-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식물 나눔 행사: 6월 23일(일) 14시, 태평4동 1546번지 2층

㉔ 오페라하우스 | ㉕ 콘서트홀 | ㉖ 앙상블시어터 | ㉗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홀 | ㉘ 성남큐브미술관 | ㉙ 반달갤러리 | ㉚ 상설전시실 | ㉛ 갤러리 808 | ㉜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㉔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 4〉 (11:00, 14:00, 16:30) ㉕ 베누스토 분당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2 ㉔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 4〉 (11:00, 14:00) ㉕ 앙상블하임 (17:00)
3	4	5 ㉔ ㉕ 마스터즈 시리즈 2 〈해변의 남자〉 (20:00)	6	7 ㉕ 아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0)	8 ㉔ 거미 콘서트 〈This is Gummy〉 (18:00) ㉕ 성남국제기타페스티벌 (17:00) ㉖ ㉗ 마스터즈 시리즈 4 〈자아도취〉 (18:00)	9 ㉕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회 (17:00) ㉖ ㉗ 마스터즈 시리즈 4 〈자아도취〉 (15:00)
10	11 ㉕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19:30)	12	13	14 ㉕ 성남시향 163회 정기연주회 (19:30) ㉖ ㉗ 연극만원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20:00)	15 ㉕ 플루트오케스트라 아우름 정기연주회 (18:00) ㉖ ㉗ 연극만원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14:00, 17:00)	16 ㉕ 분당뮤전오케스트라 (19:00) ㉖ ㉗ 연극만원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14:00, 17:00)
17 ㉕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희망콘서트 (19:30)	18	19	20 ㉕ ㉖ 마티네 콘서트 (11:00)	21	22 ㉕ 이미지-노래 인생 60년 기념 음악회 (14:00, 17:00) ㉖ 가극 〈금강〉 낭독 공연 (19:00)	23 ㉖ 가극 〈금강〉 낭독 공연 (15:00)
24	25	26	27	28	29 ㉔ 장범준 전국 공연 〈노래방에서〉 (18:00)	30

※ 대관 단체의 공연일정 및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남큐브미술관 전시 일정 (6~7월)

전시명	전시 기간	장소	비고
㉘ 2019 동시대이슈전 〈바디스캔들〉	3월 22일~8월 25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㉙ 성남청년작가전 2 〈주선영 : 푸른밤〉	6월 14일~8월 4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월요일 휴관
㉚ 2018 신소장품전	1월 11일~6월 30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매주 수요일 20:00 까지 연장 개관
㉛ 소장품주제기획전	7월 19일~12월 22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㉔ 오페라하우스 | ㉕ 콘서트홀 | ㉖ 앙상블시어터 | ㉗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홀 | ㉘ 성남큐브미술관 | ㉙ 반달갤러리 | ㉚ 상설전시실 | ㉛ 갤러리 808 | ㉜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㉔ 정태춘·박은옥 40주년 전국 투어 〈날자, 오리배〉 (18:30)	7 ㉔ 김창옥 토크콘서트 ‘잘살아보세’-성남 (18:00)
8	9	10	11	12	13 ㉔ Ballet of Summer Night (18:00)	14 ㉔ Ballet of Summer Night (15:00)
15	16	17	18 ㉕ ㉖ 마티네 콘서트 (11:00) ㉗ 성남시립합창단 기획공연 (11:00, 14:00)	19 ㉕ ㉖ 앙트레 콘서트 〈변강쇠 짝 찍고 옹녀〉 (20:00) ㉗ 하늘소리오케스트라 (20:00) ㉘ 성남시립합창단 기획공연 (11:00, 14:00)	20 ㉕ ㉖ 앙트레 콘서트 〈변강쇠 짝 찍고 옹녀〉 (15:00) ㉗ 하루키, 라틴 지브리를 만나다 (17:00) ㉘ 바람개비콘서트 (17:00)	21
22	23	24 ㉕ 성남시립교향악단 164회 정기연주회 (19:30)	25 ㉖ 성남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26 ㉕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9:30) ㉖ 성남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27 ㉕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4:00, 19:00) ㉖ 성남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28 ㉕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4:00) ㉖ 성남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29	30	31 ㉖ 권마리 독주회 (19:30)				

※ 대관 단체의 공연일정 및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갤러리 808 전시 일정 (6~7월)

전시명	전시 기간	장소	비고
㉜ 성남아트상품전 Dream & Goods	6월 11일~6월 19일	갤러리 808	
㉝ 제 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화화 부문	6월 20일~6월 30일	갤러리 808	월요일 휴관
㉞ 제 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7월 2일~7월 14일	갤러리808	매주 수요일 20:00 까지 연장 개관
㉟ 아시아미술가협회전	7월 16일~7월 25일	갤러리808	

성남문화재단, 미디어아트전 <무엇 WHAT> 개최



©최재우

성남문화재단이 2019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진행한 교과연계 체험전시 미디어아트전 <무엇 WHAT>이 지난 4월 30일(화)~5월 31일(금)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에서 진행되었다. 성남문화재단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성남형교육지원단과 함께한 이번 전시는 중학교 과학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과학 원리를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발견하고 체험하는 특화 전시로, 노해울, 레이박, 박얼, 박준범, 송호철, 하이브, 해몽중계 사무소, c.realTimes, DEXM Lab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9인의 작가와 2개의 기업이 참여해 약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미디어아트 팀 DEXM Lab은 청소년들이 게임으로 많이 즐기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작품, 레이박은 반사판 없는 홀로그램 아트와 함께 빛의 간섭 원리를 시각화한 설치작품을 선보였으며, 클라드니 패턴 실험을 접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진동과 파장으로 그린 송호철 작가의 그림, 동작 감지 센서를 활용해 4개로 분할된 화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나를 동시에 만나는 하이브의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작품 <콰르텟>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심장이 뛰는 로봇 '콩닥군'의 손이 관람객의 심장에 닿으면, 로봇의 심장이 관람객의 심장과 같은 주파수로 뛰며 그 소리를 재생하는 박얼 작가의 <콩닥군>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번 전시는 평일에는 사전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성남 지역 35개 중학교 5천8백여 명의 학생들이 관람했으며, 주말에는 일반인 관람이 함께 진행되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미디어아트전 <무엇 WHAT>을 통해 성남지역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고 있다.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않는 1

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
031-783-8124
snsa@snart.or.kr
instagram
@publicartstudio_sh
facebook
@spacepublicart

오시는 길
태평역 2번출구 방향
» 마을버스 77번 승차
» 현충탑 정류장 하차

211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197번지 일대

2019년
6월 14일 ~ 23일
오후 12시 ~ 17시

197

참여작가
김달, 김달·박승예 프로젝트팀, 박성진,
박양빈, 박혜수x배민경, 서해영, 성유진,
송주원(일일댄스프로젝트), 아라리네arachne
이원호x가선프로젝트팀, 아창홀, 허수빈

1546

152

프로그램
6월 14일(금) 19시 박혜수x배민경 퍼포먼스 및 오프닝
6월 15일(토) / 16일(일) 18시
골목 누워 영화제
6월 22일(토)~23일(일) 12시~17시
신용공공예술창작소 오픈스튜디오
6월 22일(토) 14시 공공예술창작소 라운드테이블
6월 23일(일) 14시 허수빈 우리육상 워크숍

1709

주최
성남문화재단

주관
공공예술창작소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후원
성남시

2591

도유주신 곳
10000 ARTS
10000 ACTS
10000 EVENTS

금난새 지휘자, 인터파크 골든티켓 어워즈 수상

성남시 예술 총감독 겸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금난새가 지난 4월 29일, 인터파크 <제14회 골든티켓 어워즈>에서 클래식·무용·전통예술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대 티켓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가 한 해 동안 최고의 티켓 파워를 보여준 작품과 인물을 선정하는 골든티켓 어워즈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진행된 공연을 대상으로 티켓 판매량, 판매 랭킹 점수를 면밀히 집계해 후보 작품과 배우를 선정했다. 금난새 지휘자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 대중화의 길을 열게 한 선구자'라는 평가와 함께 골든티켓 어워즈에서 무려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한편 성남시립교향악단과 금난새 지휘자는 지난 4월 초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4월 23일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직접 만나 성금 1천66만 원을 전달했다. 재난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에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63명이 십시일반 모은 이 성금은 고성, 속초, 동해 등 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금난새 지휘자는 지난 2000년 강원도 산불 당시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재민을 돕는 기부 콘서트를 열고 그 수익금 5천만 원을 연주자들과 함께 기부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앞장서고 있다. 금난새 지휘자는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남시향 단원들과 뜻을 모아 작은 정성을 전한다"고 전했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소식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김연태 사업이사(성남시 치과의사회 고문)가 소속되어 있는 성남시치과의사회에서 아름다운 예술 나눔을 실천한다. 성남시 치과의사회는 9월 20일~21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진행되는 연극만원 <죽고 싶지 않아>에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확대를 위한 객석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화제작 <죽고 싶지 않아>는 무용과 연극의 조합



01 3년 연속 골든티켓 어워즈를 수상한 금난새 지휘자

02 금난새 지휘자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에게 산불피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을 통해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생(生)의 기운을 전하는 청소년극으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김연태 사업이사는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듣고 <죽고 싶지 않아>를 선택했다. 이번 객석 나눔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체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최충열/박지향	(주)유엔젤 대표이사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김진명/심정자 손경호/이동순 안봉혁/어윤경 이완근/홍은희 이재환/한정의	(주)인피콘 대표이사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변봉덕/이매연 정대혁/김대원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아람휴비스(주) CEO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박미경/강대식 백종훈/지용애	남궁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국제로터리 3600지구 前 총재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한국디지털콘크리트(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희자 송 자/탁순희	손의명치과원장 / 문인화가 세이프키즈코리아 대표이사, 前(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오풍영/이승희 윤영상/박인영 헤이성무/김복기	경기일보 상무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회장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김진환 부회장 강효주 박지향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40 이메일 mecenat@snarf.or.kr

Patrons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육선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여영동/이옥자 최계순/김순자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前 (주)씨너스 회장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서양화가, 프랑스 작가협회회화 분과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강효주/이동연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분당 마음상담연구소장
김길복/이상숙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동술/민인선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주)금화 대표이사
김명자/이승오 김문기/김인숙	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前 문화체육부 장관
김연태/이주숙 김영수/원종순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중현/정승희 김진환/이화용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국제로터리 3600지구 前 총재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한국디지털콘크리트(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박미경/강대식 백종훈/지용애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국제로터리 3600지구 前 총재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한국디지털콘크리트(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희자 송 자/탁순희	손의명치과원장 / 문인화가 세이프키즈코리아 대표이사, 前(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오풍영/이승희 윤영상/박인영 헤이성무/김복기	경기일보 상무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회장
이은화/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이종덕/김영주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RBS은행 서울지점 삼성전자 상무 / GS홈쇼핑 상무
이지은/김순건 이호순/김명순	GS홈쇼핑 상무
임삼규/정효정 임현주/김윤선	임삼규/정효정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장세영/김준식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정은경/박민걸	세일기공(주) 대표 모란새로운약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정인택/유경희 조남주/이규철 최병무/박인수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주)ING생명보험 명예상무 미술단체 <線과 色> 前 명예회장 세무법인 청담 대표, 분당지역세무사회 회장
한병무/최정자 허용무/구은희 허 하/홍애자 황광석/조영순	(주)삼화 F&F 회장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前 상아제약 회장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희회원 박명숙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서정림 신선희	림에이엠시 대표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까치회원 우문식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개인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개인	철쭉	500만 원 이상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치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기부회원